

平昌李氏靖肅公派譜

卷之一

目次

一 寫真

二 山圖

三 平昌李氏世譜序

四 世譜序

五 丁卯譜序

六 續子族譜序

飛譜序

# 平昌李氏靖肅公派譜 卷之一

一 平昌李氏世譜末源

二 齊地風俗

三 刊布公輩時

四 跋文

五 平昌李氏世譜末源

六 歷代總覽

七 行禮字系

八 編年公族系圖

# 目次

一、寫真	一
一、山圖	八
一、平昌李氏族譜舊序	一七
一、癸卯譜序	一九
一、丁卯譜序	二一
一、庚子族譜序	二三
一、庚辰譜序	二八
一、序文(一九五八年)	三二
一、序文(一九五八年)	三三
一、平昌李氏世譜本源先系錄	四三
一、輿地勝覽	四七
一、判書公璽牒	四八
一、跋文	五〇
一、平昌李氏靖肅公派派譜發刊推進委員會	五三
一、歷代總紀	五七
一、行列字表	七一
一、謁平公後系圖	七二



一、平昌李氏先系圖	.....	七三
一、平昌李氏靖肅公派譜 卷之一	.....	一〇一四
一、平昌李氏靖肅公派譜 卷之二	.....	一〇一七四
一、平昌李氏靖肅公派譜 卷之三	.....	一〇二二八
一、平昌李氏靖肅公派譜 卷之四	.....	一〇二三八
一、平昌李氏靖肅公派譜 卷之五	.....	一〇二三四
一、平昌李氏靖肅公派譜 卷之六	.....	一〇二五六



平昌李氏始祖齋室入口全景  
平昌郡 平昌邑 柳洞里



始祖白鳥府院君齋室全景



始祖 白鳥府院君 齋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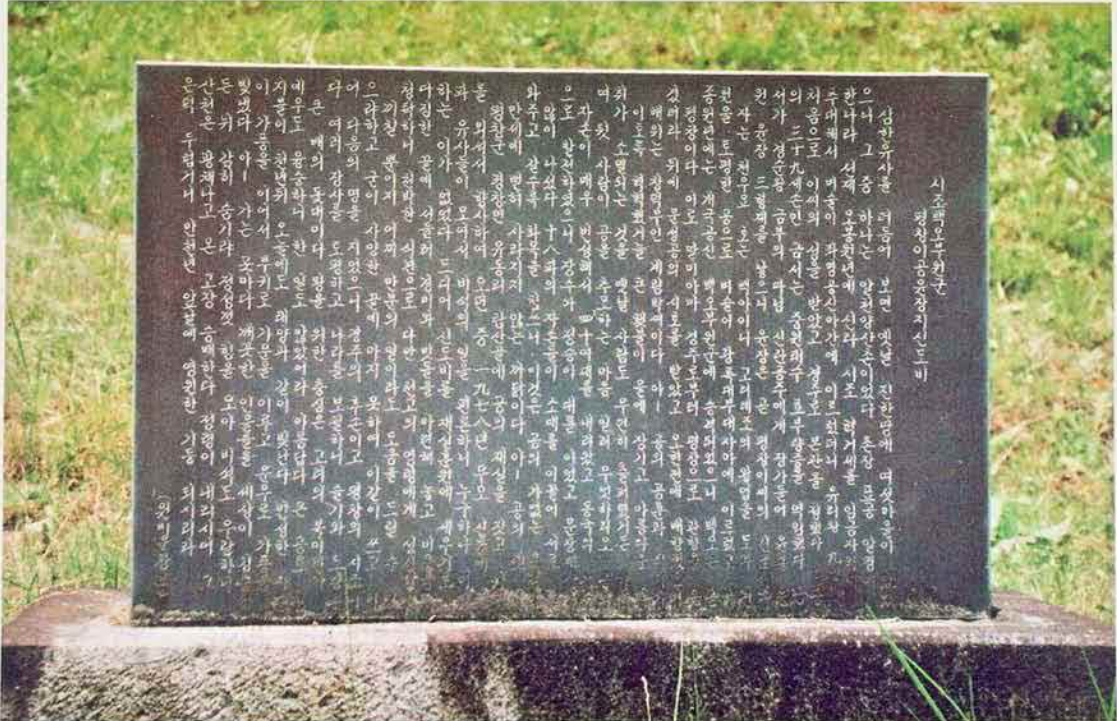
平昌李氏 靖肅公 墓域 全景  
平昌郡 平昌邑 柳洞里 塔上谷



始祖 白鳥府院君 諱潤張 神道碑 全景



始祖 白鳥府院君 諱潤張 神道碑



始祖 白鳥府院君 諱潤張 神道碑 後面 說明文



靖肅公 諱芝 墓影



ଅକ୍ଷରମାନଙ୍କର ଉଚ୍ଚାରଣ

କ୍ଷାତ୍ କ୍ଷାତ୍ କ୍ଷାତ୍

କ୍ଷାତ୍ କ୍ଷାତ୍ କ୍ଷାତ୍

କ୍ଷାତ୍ କ୍ଷାତ୍ କ୍ଷାତ୍

କ୍ଷାତ୍ କ୍ଷାତ୍ କ୍ଷାତ୍





ଅକ୍ଷରମାନଙ୍କର ଗୁଣ

ଅକ୍ଷରମାନଙ୍କର ଗୁଣ

ଅକ୍ଷରମାନଙ୍କର ଗୁଣ

ଅକ୍ଷର

ଅକ୍ଷରମାନଙ୍କର ଗୁଣ

सुखमसुख

सुखमसुखसुखसुखसुखसुख

सुखमसुख

सुखमसुखसुखसुखसुखसुख

山

公

太

画

山



五  
高  
空  
元  
青  
蕭  
公  
公  
普  
卷  
之  
一

太師公山圖

匡坪



伊川郡古味吞面金坪里后山辛坐

平城君山圖

伊川郡古味呑百

龍淵洞后山癸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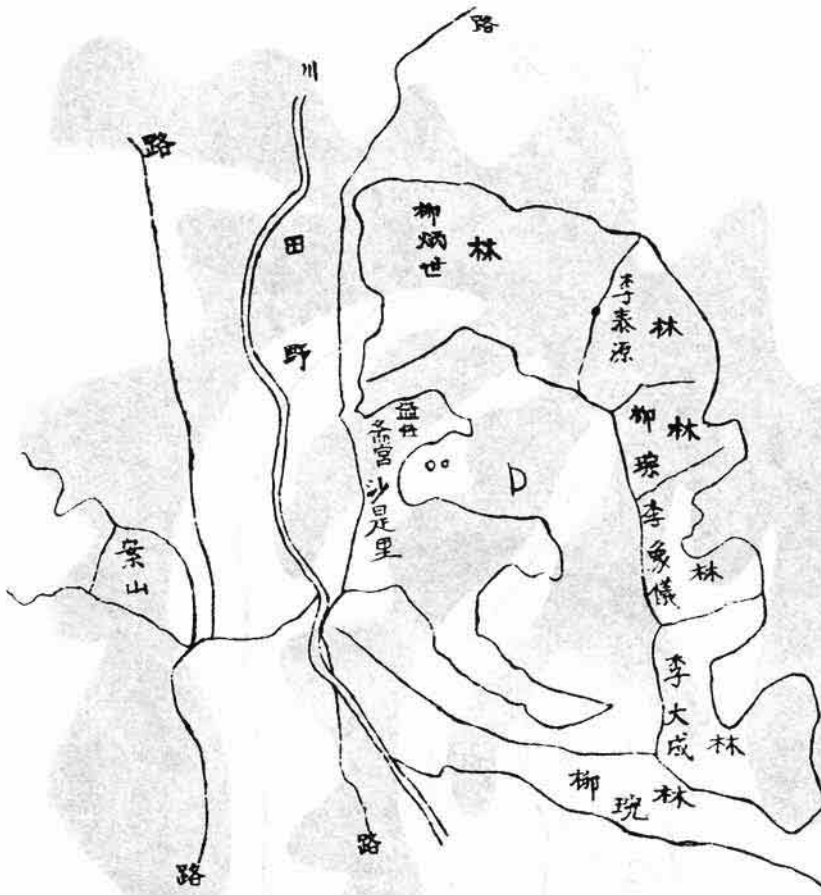
琴瑟峯



日本二百二十六日圖卷

# 散騎常侍公山圖

一長湍郡長道面沙是里馬場隅后山  
 一百積貳萬。八百。貳坪四合  
 一案山壹千貳百八拾四坪六合



己未二月二十六日調査

56000

圖山公監縣津康祥永諱



坐乾谷松里鶴松面川灘郡州公

五  
為  
至  
代  
青  
龍  
公  
後  
普  
卷  
之  
一

一  
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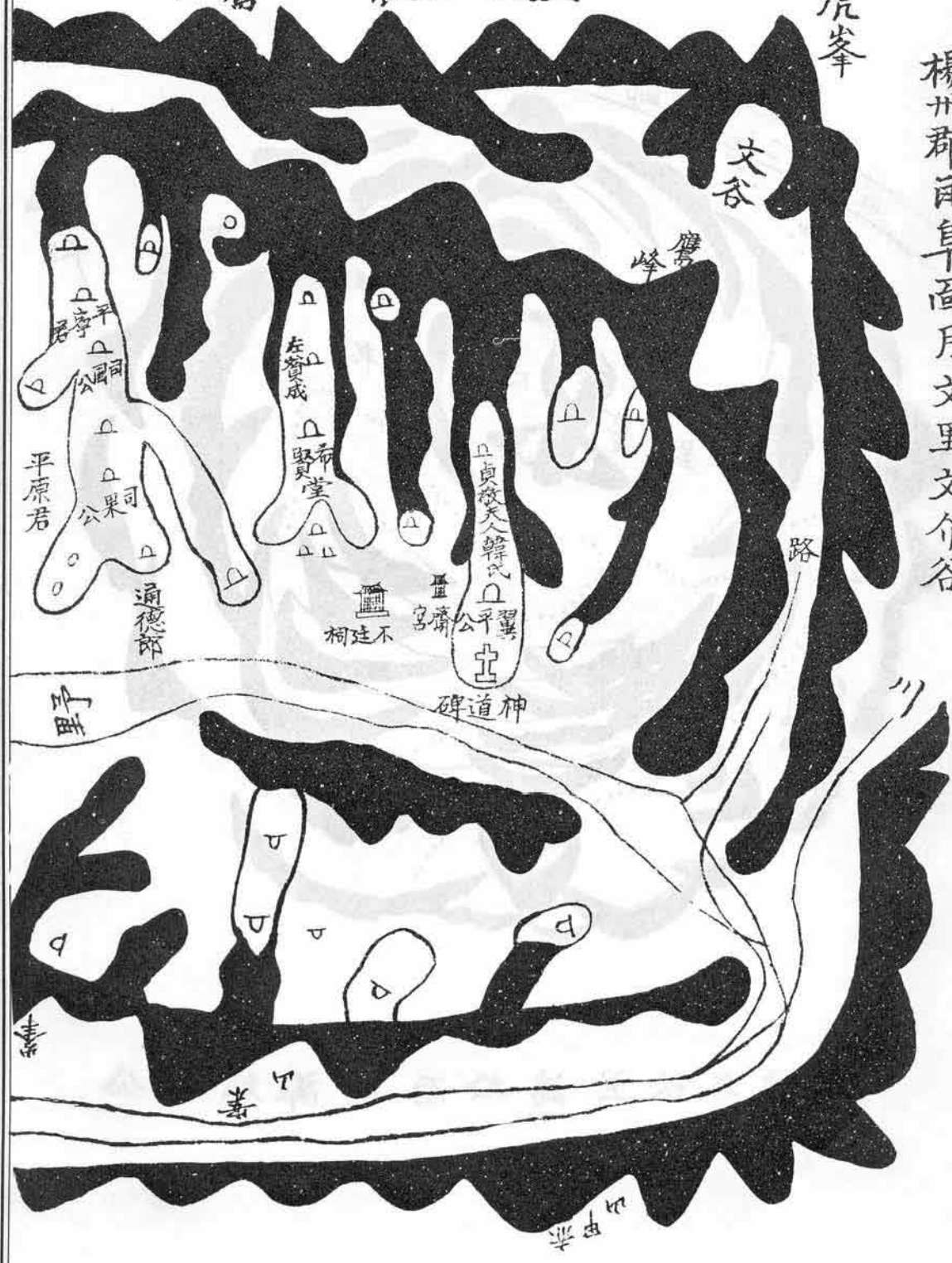
圖山楊益州文藝

楊州郡瓦阜面月文里文介谷

虎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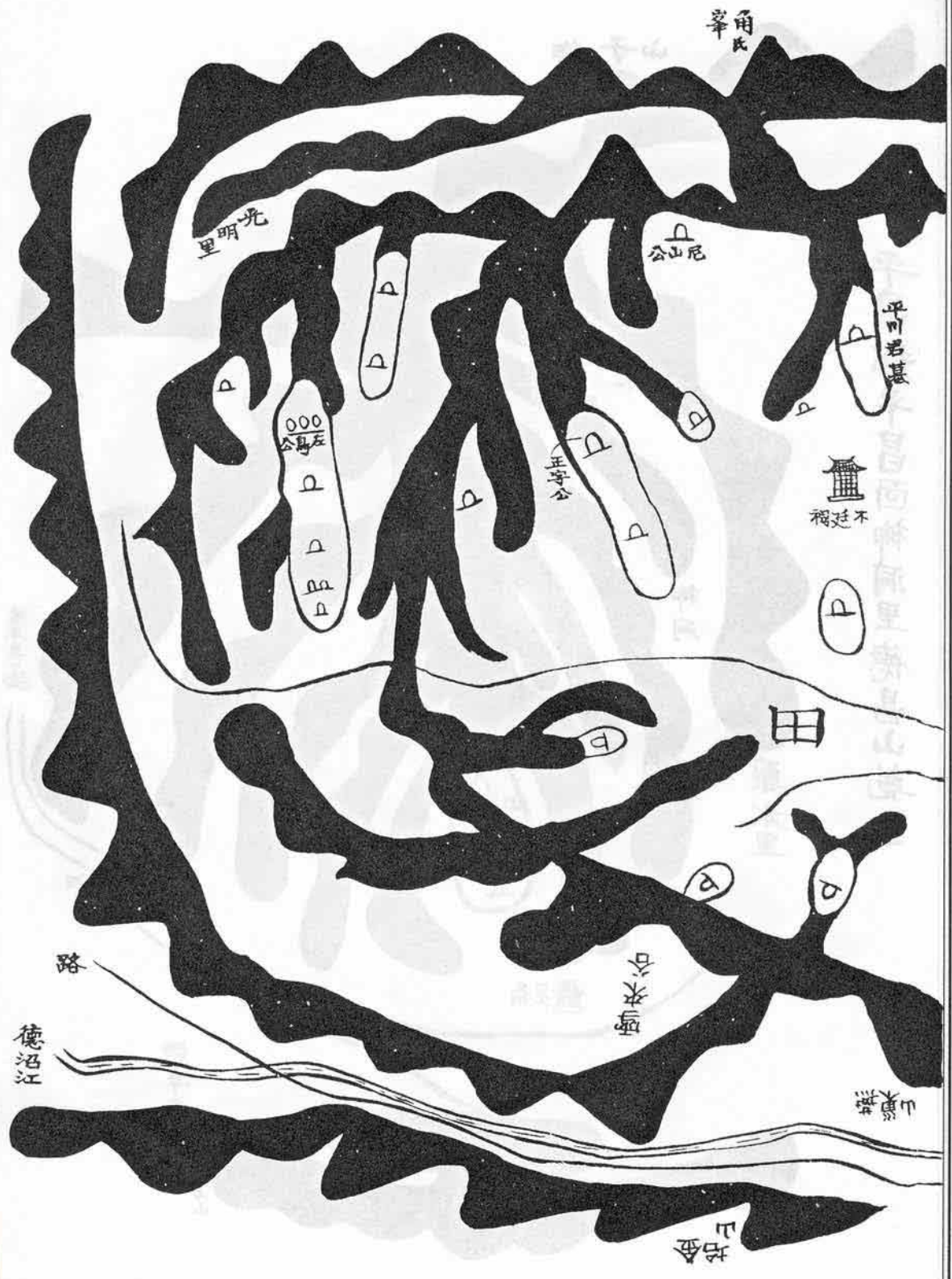
鐵馬山來龍

鷲峰





青 圖 山 谷



立 局 空 代 青 肅 公 公 普 卷 之 一

靖 甫 公 山 圖 谷



平昌郡平昌面柳洞里德昌山乾陞

平昌邑

至本邑路

泗水

鐘阜里

三方山

印峯

望臺

柳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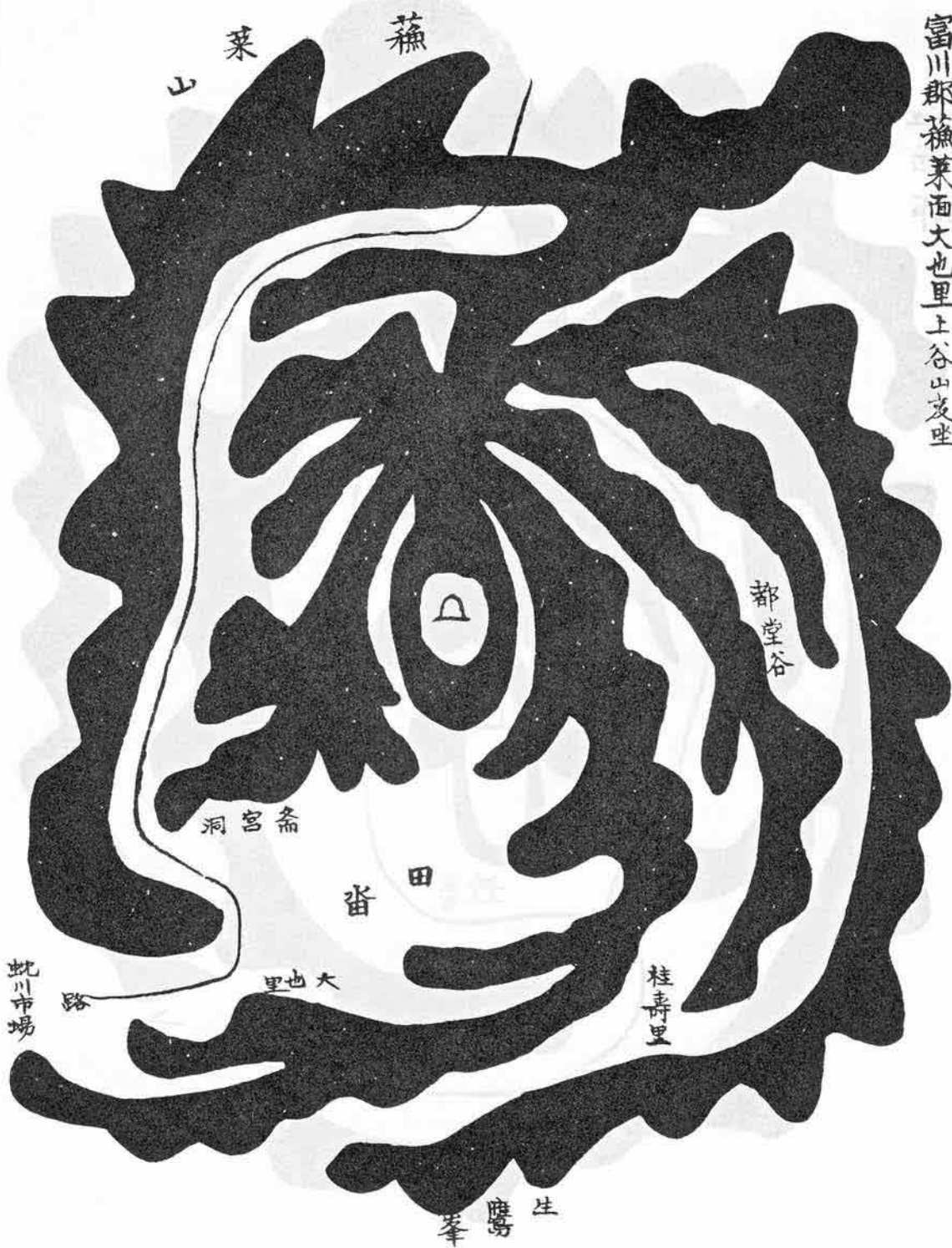
飛來山

獅子山

藥水里

憲武公山圖

富川郡蘓萊面大也里上谷山及坐



富川郡蘓萊面大也里上谷山及坐

護軍公山圖

江西郡



## 平昌李氏族譜舊序

維我李氏載於海東三大姓圖及輿地誌蓋已著顯於羅麗之際其來矣  
本朝申文景公所撰吾 先祖墓銘有曰遠有代序亦有曰流祉平原信乎其言之有徵也噫彌代彌遠支  
派漸繁傳來舊譜疎畧殊多歲庚申余宰嶺邑時有增刊而諸宗之散在遠地者猶不能一一載錄未可謂  
完譜也其視古人修明譜系廣大相庇之義誠有愧焉必欲可詳而演者久矣而遷延歲月以迄于今中心  
絀結未嘗暫釋乃者宗中若而人專意茲事相會講確就譜中當錄而不錄者更加考訂列于舊本余實嘉  
其志之甚篤喜前業之卒究雖以老病昏耄之甚其於叅互釐改處亦有所論定向之有志未者就今乃遂  
矣是豈偶然也哉緬惟 先世名行懿德哀哀相繼敦尚詩禮永垂模範今我同譜之親誠能奉以承述無  
忝無愆則餘慶所及益致蕃衍昌大他日繼此而譜者繼不知爲幾許卷帙豈不盛哉余於是尤爲申申焉  
上舍弘齡暨文素誠且謹於此實多致力焉并記前後事實書之卷首云爾

歲庚寅季春上泮春

襍侃蛸 漢旻

평창이씨 족보 구서

우리 李氏는 해동 三大姓圖와 및 여지승람에 등재 되어있고 이미 신라 고려에 나타나서 내려온  
것이다.

조선조에 申文景공이 지은 우리 先祖 묘갈명에 말하기를 『번 옛날부터 代序가 있었다』 했고 또

말하기를 『평창에 복되게 살았다』고 했으니 진실로 그 말이 증거가 있도다 아! 대수가 멀어지면 각파들이 번성하게 되는 것이다.

전래된 구보가 간소한 곳이 너무 많은 지라 정신년에 내가 영남에 고을 원이 되었을 때에 족보를 증간했으나 모든 일가들이 遠地에 흩어져서 일일이 재록하지 못해서 완전한 족보라 할 수 없었다 古人들의 譜系를 밝히고 널리 돕는 뜻에 부끄럼이 있도다 반듯이 상세하게 널리 하고저 한 것이 오랜 세월에 지연되어 지금에 이르렀으니 마음속에 맺혀서 잠시도 풀리지 않는 지라 이에 증중에 몇 사람이 이 일을 전담해 모여서 강론을 하되 족보에 기록되어야 할 사람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다시 정정을 해 舊本에 다 列錄을 하니 내가 실로 그 뜻이 독실한 것을 아름답게 여기고 옛날에 하던 일을 마치는 것을 기쁘게 여겨서 비록 높고 병들어 노망이 심하나 그 참작을 해서 정정할 것을 논의를 해서 생각은 했어도 고치지 못한 것을 지금 이루었으니 이것이 어찌 우연한 것일까。

저! 先世에 항렬과 美德이 줄줄이 있고 詩禮를 숭상해서 길의 모범이 되었으니 지금 족보를 갈이하는 자는 진실로 능히 조상을 잘 받들고 이어서 조상을 욱되게 함이 없고 허물이 없게 되니 경사가 이어져 더욱 번창하고 창대할 것이니 他日에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족보를 하면 몇 권으로 늘여 날지 알 수 없으니 어찌 盛大하지 않을까 내가 더욱 일괄이 편안하노라 상사(上舍·군수) 弘齡과 및 文素가 진실로 이 일을 열심히 했으니 힘을 많이 쓴 것이라 前後에 사실을 다 기록해서 책 머리에 쓰노라。

경인 三月 상수

용열한 자손 광부는 삼가 쓰노라

## 癸卯譜序

家之有譜卽國之有史也史以記事譜以叙族則昭穆由是而定統緒由是而別尊祖敦族之道於斯焉備此修譜之大義也惟我李氏雖不繁衍而世守清白家傳詩禮父慈子孝兄友弟恭尊尊親親同德合義情見于親親見于服得姓者四百有餘年統繼者三十有餘世絃組蟬聯雲仍千指胚胎殆前光而代序既舊支派又遠散在各處將不識其派流之分相視塗人噫始而一祖分而爲兄弟又分而爲功總又分而爲無服今日之兄弟卽前日之一祖其可無服而不敦親乎庚申之譜庚寅之譜皆我高祖致政公所纂修而今距庚寅爲八十有餘年矣其間之詳畧隆殺不同非譜則無以知之故全倣庚寅法例因舊增新嚴而不濫簡而不漏使遠枝遐苗咸知得姓之所自來統繼之所有別然而事距力綿卒業爲期有當入而不入者則未可謂完譜也惟俟諸宗之繼此而演成則豈不美哉族弟鉉億實主是事方其鳩工入梓屬余爲叙噫易曰類族辨物類族辨物否之終而大有之始其於辨類之意切有望於來復之道也蘇氏曰觀吾譜者孝悌之心油然而生昔之視如塗人者可爲百世敦親顧我同譜之人先以孝悌之心相勗又以辨類之義共勉無忝爾所生其在尊祖敦宗之道庶幾萬一吾宗之諸君子盍相勉旃

歲癸卯十一月南至後三日

玄孫 鉉五 敬書

### 계묘보서

가문에 족보가 있는 것은 곧 나라에 역사가 있는 것과 같은 것이라 역사에는 일을 기록하고 族譜

는 일가들을 기록하는 것인즉 昭穆이 이로써 정해지고 계통이 이로써 구별되나니 尊祖敦族하는 도리가 이에 갖추어지게 되는 것이니 이것이 修譜의 大義라 우리 李氏는 비록 번성하지는 못하나 대대로 清白하고 집집마다 詩禮를 전하고 아버지하는 사랑하고 아들들은 효도하고 兄은 우애하고 동생은 공손하고 높은 어른을 높이고 친한이를 친하고 德과 義를 같이해서 情이 친척에 나타나고 친한것이 服입는데 나타나나니 우리가 姓을 얻은것이 四百餘年이고 대수가 三十여대에 벼슬이 빛나고 자손들이 천여호라 前光을 이어받아 代序가 오래됨에 支派가 멀어져서 各處에 散在해서 派가 서로 갈라진 것을 알지 못하고 길가는 사람 보듯하니 슬프다! 처음은 한 할아버지가 兄弟로 갈리고 또 갈려서 小功 大功 總麻가 되고 또 갈려서 면복이 되니 오늘의 兄弟가 前日에 한 할아버지인데 면복이 되었다고 친목을 두터히 아니할까

경신보 경인보는 다 나의 고조고 致政공이 편찬한것인데 지금부터 경인년이 八十여년인데 그간 상세하고 소홀하고 강쇄해진 것이 동일하지 아니하니 族譜가 없으면 알수없는고로 전부 庚寅譜에 범례를 모방하고 구보를 보고 新譜를 늘리되 입증하게해서 범람하지 아니하고 간략하되 누락됨이 없어서 멀리 흠어진 일로 다 姓을 얻은 由來와 계통의 구별을 알도록 하고저하나 그러나 일일이 거창하고 힘은 미약해서 일을 마칠때 되어서보니 마땅히 들어가야 할 사람이 들어가지 못했은즉 원전한 족보라 할수없는 것이라 오직 일가들이 계속해서 간행을 한즉 어찌 아름답지 아니한가

族弟 鉉億이가 이 일을 주관해서 각자하는 사람을 구해서 인쇄를 하려고 하면서 나에게 서문을 부탁하니 아! 주역에 말하기를 『씨족이 갈아도 인물이 다르다』 했으니 씨족이 갈아도 인물이 다른것은 否괘의 끝이고 大有괘의 시작이라 했으니 다르고 같음 뜻이 오고 가는 이치(순환)가 있는 것이라



蘇氏가 말하기를 『우리 족보를 보는 자는 孝悌之心이 저절로 일어나다』 했으니 옛날 남보든지 하던 사람이 百世도록 친목을 두터히 할 것이니 우리와 같이 족보를 하는 자는 孝悌之心을 먼저 힘쓸 것이고 또 같고 다른 義理를 힘써서 너의 조상을 더럽히지 말라는 뜻은 조상을 높이고 일가간에 두터히 하는 도리에 있으니 만분의 일이라도 우리 일가분과 모든 근자들이 서로 힘쓰지 아니할까

계묘十一月동지후三日에

현손 현오는 공경히 쓰노라

## 丁卯譜序

人之道孝悌而已廣吾孝而尊先祖推吾弟而敦九族尊祖敦族而又思其無窮也乃爲之譜焉攷年代述德業闡發其幽潛所以報先人也序昭穆辨名爵聯比其疏近所以合親屬也家必有族族必有譜視其族之衆寡譜有繁簡之異焉或繁衍散漫不能統合而歸一則乃自以其派約爲一譜而各達其所自出比江河淮濟率其流而同至于海也譜雖簡不猶愈於廢而不治猶水雖分不猶愈於闕而不流故寧無論其繁若簡而義歸於尊祖敦族其可乎謹攷平昌李氏譜麗初官太師公寔其鼻祖而始見于史氏之錄繼而皆顯仕五世而侍郎平城君忠烈王時從王子聘于元以其勳受封侍郎之孫常侍公登元朝制科嘗與圃隱爲仕于 本朝名載郡誌及輿地勝覽有諡靖肅公常侍公玄孫官直長超遷至貳相自京徙于郡南子孫仍爲地著迄今十數世簪紳不絕不失爲吾東名族而譜牒之久而未遑蓋以來仍之散處議不一力不瞻也今至義圭氏克紹先志殫誠蒐採倡斯譜族而人中不及修牒者姑闕而不書以俟後日若欲其纖悉罔遺而爲譜是不可期也不可期是終無譜也無譜則世德泯焉源派紊焉將無可以報先人合親屬以底於

孝悌之道所以汲汲乎其重且大義圭氏之志也詩曰自古在昔先民有作維太師至靖肅可以當之又曰以似以續續古之人義圭氏之責而請又是以爲李氏子孫誦

崇禎紀元後四丁卯

行弘文館修撰知制教

南陽 洪儀 泳 叙

정묘보서

사람의 도리는 孝悌뿐이니 내가 효도를 널리 해서 先祖를 높이고 내가 공경을 미루어서 九族을 두터히 하니 조상을 높이고 九族을 두터히 해서 無窮하도록 하고저 하는 것은 족보를 해야 하는 것이라 연대를 상고하고 德業을 계승해서 그 문혀있는 것을 개발하는 것이 先人들을 보답하는 것이고 昭穆을 질서있게 하고 이름과 벼슬을 분별해서 글을 연하도록 하는 것이 친척을 합하는데 가까운 것이라 가정에는 일가가 있고 일가간에는 반드시 족보가 있는 것이니 씨족에는 많고 적음이 있고 족보에는 긴밀하고 간략한 다름이 있나니 혹 번창해서 널리 흩어져 능히 하나로 統合하지 못한즉 이에 그 派만 간략하게 동일한 족보를 해서 각자 그 소자출을 알도록 할것이니 비유하면 대江과 河水가 그 흐르는 것은 달라도 다같이 바다에 이르는 것과 같으니 족보가 비록 간략하나 오히려 철폐하고 하지 아니한것보다 나으나 오히려 물이 비록 갈라졌다해도 막아서 흐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보다 나은 고로 차라리 번거롭고 간략함을 논하지 말고 尊祖敦族하는데 뜻을 모으는 것이 옳을 것이라

삼가 平昌李氏 족보를 살펴보니 고려초 太師公이始祖로서 처음 역사 기록에 나타난 것이라 계승해서 벼슬을 해서 현달했고 五世에 侍郎 平城君은 忠烈王때에 王子를 따라서 元나라에 초빙받아

갔었는데 그 공로로 封君을 받은 것이라 侍郎公의 손자 常侍公도 元나라에 가서 등과를 했고 圃隱  
 先生과 같이 고려조에 벼슬했으니 이름이 郡誌와 輿地勝覽에 등재되어있다 시호가 靖肅公은 상시  
 공의 현손으로 벼슬이 直長에서 이상(貳相·찬성)에 이르렀는데 개성으로부터 평창읍 남쪽으로 이  
 사와서 살았으므로 子孫들이 정착하게 되었으니 지금까지 十여대인데 벼슬이 끊어지지 아니해서  
 우리 東方에 名族이란 말을 잃치 아니했는데 族譜를 오래도록 간행하지 못함은 대개 자손들이 각  
 처에 흩어져서 議論도 통일하지 못하고 힘도 부족함 때문이라

지금 義圭氏가 능히 先代에 뜻을 잇고져 정성을 다해 수단을 모아 이 族譜를 이루었는데 族人中  
 에 수단을 아니한 자는 빼어놓고 쓰지 아니한 것은 후일 족보할때를 기다릴 것이고 만약 세밀하게  
 누락됨이 없는 족보를 기약할수 없는 것이니 마침내 족보가 없게 되는 것이니 족보가 없으면즉 世德  
 이 민몰되고 근원이 분란하게 되는 것이니 장차 先人을 보답하고 친척을 모아서 孝悌하는 도리를  
 이를수 없으니 그 義圭氏의 뜻이 重且大한데 급급한지라 詩傳에 말하기를 『自古로 옛날부터 先民  
 이 있었다』고 했으니 太師公과 靖肅公이 이말에 해당하도다 또 말하기를 『같은 것을 계속하고 옛  
 날사람을 계속한다』했으니 義圭氏의 責任이고 또 이것을 李氏 子孫으로 위우도록 청하노라

승정기원후 四丁卯(一八六七年)

행 흥문관 수찬지제교 남양 홍의영서

### 庚子族譜序

周禮小史掌四方之志奠世繫辨昭穆秦火以後惟左邱氏世本太史公據之爲史記東漢碑石必詳氏族  
 所由來蓋先王保性受氏敬宗收族之法未盡泯也維我東邦羅濟句麗先事功後門第譜學遂闕舊德尠

傳悠悠世胄迄無攷按良可慨哉平昌李氏肇自麗代貂蟬聯翩逮于 本朝翼平公諱季男憲武公諱季  
仝兄弟勳銘旂常澤被黔蒼雲仍相承族茂閩華何其盛也李君峻奎從余遊示余以家譜譜三修也宗支  
遠近燦若列眉溯厥祖源衍及派流閱畿百年更兵燹去墳墓者屢矣而宗流支分不少紊焉是李氏之先  
有長德君子持重昭穆嚴統序之分合謹嗣續之出入足爲信史於世也嗟乎夫躋通顯擁厚貲者徃徃田  
宅膏腴爲子孫謀其稍有智者又或鑄刊碑板圖籍以自銜焉及於余祖德宗典概置不講舍其本而圖其  
末也所謀所銜其有久乎余於是賢平昌李氏之宗而謂得修譜之體也盖溯而上之由十萬而本一人也  
降而下之自一人而至千萬也苟無法而統之骨肉之親有行路之不知譜牒之爲有家先務者良有以也  
屬有疏近禮不能無隆殺系由根源情不容有睽隔友繩先矩以父母之心愛兄弟敦睦循古法以祖先之  
心愛宗族仁人孝子之天經也平昌氏兢兢焉勿替引之彝倫之明風俗之厚亶不外是是修譜之志也有  
國必有史史籍於乘歐蘇氏先己得矣平昌氏亦知之矣余故因序之

太歲庚子孟夏

崇祿大夫弘文館學士 大邱 徐相雨 謹題

경자족보서

周禮에 小史氏가 四方에 뜻을 모아 세계를 만들고 昭穆을 밝혔는데 秦始皇이 불태운 이후로 左  
邱씨가 세계를 만들었으므로 太師公이 이를 근거로해서 史記를 만들었으니 東漢(後漢)이 氏族을 상  
세하게 해 놓았으니 여기에서 由來된 것이라 先王들이 姓氏를 잘 보전하고 氏族을 거두는 법이 없  
어지지 아니한 것이라

우리 동방에 신라 백제 고구려 고려는 공로를 우선하고 문벌을 뒤로 했으므로 족보가 없었던 것  
이라 조상에 덕업을 전하지 아니하니 悠悠한 세덕을 삼고 할수 없으니 진실로 개탄할 일이라

平昌李氏가 고려때부터 빛남이 이어졌는데 조선조에 이르러 翼平公 季男과 憲武公 季소형제분의  
공로가 旂常에 새겼고 혜택은 백성에게 입히어 子孫이 이어왔으니 가문이 번창하고 화려한지라 어  
찌해서 그렇게 잘되었는고 李君 峻奎가 나와 갈이 증유하는지라 나에게 家譜를 보이거늘 족보는  
세번 간행한 것이라 큰집 작은집이 찬란하기가 눈썹이 나렬한 듯하고 조상에 연원을 소급해 보니  
派 흘러온 것이 몇백년을 지나니는 동안 난리를 겪어서 분묘를 잃어버린 자 여러곳이나 종파와 지파  
에는 조금도 문란함이 없는지라 이것은 李氏의 先代 유덕군자들이 昭穆을 중요시하고 계통에 분파  
를 엄중히 했고 양자가고 온것을 조심스레 했으니 세상에 진실한 史記가 된것이라 아! 현달을 꿈  
꾸고 재물을 응호하는 자는 가끔 기름진 田宅을 子孫을 위해서 꾀하고 조금 지혜가 있는 자는 후  
碑에 새기고 족보에 기록해서 스스로 자랑을 하나 자기 조상의 德과 법은 버려두고 알려고 하지 아  
니하니 그 근본을 버리고 끝만 힘쓰는 것이라 꾀하고 자랑하는 것이 오래갈까 내가 이에 平昌李氏  
가 修譜의 체제를 아는 것을 좋게 생각하노라

대개 위로 소급하면 十萬名이라도 처음은 한사람이고 아래로 내려가면 一人이 千萬名에 이른 것  
이라 法으로 통솔하지 못하면 兄弟간도 길가는 자와 갈아지니 보첩이 가문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  
므로 먼저 힘쓰는 자가 진실로 이런 이유라 친척은 멀고 가까움이 있음으로 예절은 갈수록 줄어지  
고 계통은 그원이 있음으로 정이가 막히지 아니하니 우애는 선귀를 있는 것이니 父母의 마음으  
로 兄弟를 사랑하고 돈목은 古法을 따르는 것이니 祖先의 마음으로 宗族을 사랑하니 仁人孝子는  
하늘이 낸 법이라 平昌李氏는 조심조심해서 변하지 말것이며 인륜을 밝히는 것과 風俗을 두터이

하는 데는 이 족보 밖에 없는 것이니 이것이 족보하는 취지라 나라가 있으면 반드시 역사가 있나니 역사가 가승보나 나은 것은 歐陽脩나 蘇洵이 이미 말했으니 平昌李氏도 또한 알고 있는 지라 내가 이런고로 서문을 짓노라

경자 四月에

승록대부 홍문관 학사 대구 서상우 삼가 씀

維我李氏載於羅麗之史垂德累仁樹基純篤子姓益彰益繁上下千百年間鉅人長德譜不絕書史不停筆三韓載記孰與高下不朽有三世祿不稱則世家編戶若是乎無輕重哉孟子曰所謂故國者有世臣之謂也若保姓不墜爲國巨室與同休戚則誇宗尊族之論又豈可少之哉惟是親屬既竭支分派別服窮於上戚單於下以至喜不慶憂不吊路上相逢一揖馬鞭亦幾稀矣嘗聞禮曰同姓從宗合族屬又曰尊祖故敬宗敬宗故收族凡爲吾同宗者寧敢少忽嗚呼靈春敷葉蔭于通衢其本一根之萌也大姓毓慶遍于八域其初一人之身也一而爲三三而爲五五而爲九下殺旁殺而親乃畢矣楠於句萌沾潤蓓蕾脉連於根者遠揚至於南北生之膝下喘息呼吸氣通於親者子孫至於途人不亦悲哉晉謝唐崔雖稱華胄一世後孫不免廝役者無德故也惟唐杜及范歷三代而益大者世修其德故也吾宗不振久矣詩曰無念爾祖聿脩厥德今念祖修德其惟望於後孫也

歲己未仲秋上泮

後孫 鶴浩 謹序

우리 李氏는 신라 고려 역사에 기재되어 있고 德과 仁을 드리우고 기본을 독실히 함으로 子孫들이 더욱 번창해서 上下 천여년간을 인척이 후통하고 德望이 있는 자가 족보에 끊어지지 않고 역사

에도 빛을 범출수 없으니 三韓때부터 기재된 것이 누가 우리로 더불어 비교를 할고 三代를 벼슬이  
 덕망에 걸맞지 아니함이 있었으니 世家(대신의 집안)와 編戶(민간인)가 이같이 輕重이 없을까 孟子  
 가 말한 故國이란 것은 대대로 벼슬한 집안이 있음을 말한 것이라 만약 姓氏를 보전해서 떨어뜨리  
 지 않고 나라를 위하는 거대한 집안과 고락을 같이 했으니 가문을 자랑하는 말이 적다고 할까 그러  
 므로 친속(八寸까지)이 다해서 派가 갈라지고 위로는 服임는 것이 다하고 아래로는 戚誼가 다해서  
 즐거워도 축하하지 아니하고 슬픔도 위로하지 아니해서 路上에서 만나도 말채찍으로 인사함도 또  
 한 드물게 되는 것이라

일찌기 들으니 同姓은 씨족을 합한 것이라 했고 또 말하기를 『조상을 높이는 고로 일가를 공경  
 하고 일가를 공경한 고로 禮를 거둔다』 했으니 무릇 나와 같은 일가들이 어찌 감히 소홀히 할까  
 아! 따뜻한 봄에 잎이 퍼지게 되면 거리를 덮나니 그 근본은 한 뿌리에서 싹이 트는 것이니 대  
 문호가 경사가 넘쳐 八道에 뻗쳐도 기초는 한 사람이라 한 사람이 세 사람이 되고 세 사람이 오 명이 되고  
 오 명이 九명이 되나니 아래로 내려가고 옆으로 퍼질수록 친함이 다하는 것이라

싹이 처음 나와서 차차 꽃봉우리를 맺는 것이 脉이 뿌리를 연해서 멀리 뻗어 남쪽 북쪽으로 가고  
 슬하에서 호흡하며 기운이 어버이와 통하던 자가 子孫에 이르러서 남과 같이 되었으니 또한 슬프  
 지 않을까 晋나라 謝氏와 唐나라 崔氏가 비록 빛나는 집안이라고는 하나 한대를 지나서 천역을 하  
 는데 면하지 못했다 하니 德이 없었기 때문이라 오직 唐나라에 杜氏와 范氏는 三代를 지나서 더욱  
 크게 된 것은 대대로 德을 닦은 때문이라 우리 일가들이 떨치지 못한 것이 오래 되었도다 詩傳에 말  
 하기를 『너의 조상을 생각함이 없을까 오직 德을 닦으라』 했으니 지금 조상을 생각하고 德을 닦기  
 를 오직 후손들에게 바라노라

己未 八月 상순에

후손 학호는 삼가 서하노라

## 庚辰譜序

平昌之李寔東方舊族也漢宣帝時始祖以楊山村長佐羅祖開國而儒理王賜姓李氏古者軒轅之王天下也有子二十五人其得姓者十四則是有土有官得以爲姓也開國功臣之賜姓蓋以是歟周禮樂官司商定音律制姓名鄭公孫揮辨於大夫之族姓班位貴賤姓氏分別其來亦久矣漢晉以後記譜志族盛於歷代而歐陽公取法於史氏之年表蘇者泉取法於禮家之宗統黃山谷譜七世以上疑不能明者略而不著蓋慎之也我東三韓之世文獻無徵新羅百濟高句麗瓜分鼎峙爲干戈疆域而史牋不全況於氏族之譜系乎李氏始祖以下爲羅世臣而譜錄無傳至羅季蘇判公紀其世次按羅史世家大族號稱真骨大骨而蘇判公秩貴惟真骨得授是職則可知其世爲貴族也蘇判公之孫事麗太祖仍繼世簪纓南溪先生有三子皆以文章大官各賜仍貫焉則吾大人三昆李雖不敢自比於蘇家父子亦可以名動一世亦誇也麗季白河先生我朝松崗先生湖堂錄文純公翼平公文簡公五世國師八卿四文衡五魁三家五榜魁者是也東國名賢名公輔節義文章考諸名臣錄文衡譜弼席盟府玉署藝苑諸錄彬彬相望支派蕃衍而無一染涉於凶險污辱此莫非祖先懿範休澤之所及其凡爲子孫者其可不思勉飭繼述之道舊譜之刊甲申重面諸派之孫已歷五世皆當追錄故又此續成審稽遺文旁據諸譜而正其訛舛補其闕略叅用年表宗統之遺法舊譜之未備者旁註添錄而疑者闕之亦致慎之意也程子曰管攝天下人心收宗族厚風俗使人不忘本須是明譜系收世族立宗子法今我同宗之本出於一人之身而轉爲面目不知聲聞不及之人其不至於相戕剪禽獸者幾希顧念其本寧不懍然宗法譬猶木之正幹分而爲枝又有旁枝達爲幹所謂天子建國諸侯奪宗而亦各有大宗小宗親疎近遠之分同五世爲近宗同十世爲遠宗溯以上之雖百世



千世亦同宗也者天理之節文而同宗則同本不識面不相聞而不同於路人者以譜系之明也人既尊祖重本而推其孝悌之心則朝廷之勢自尊今此世譜之修但收族敦宗而尚亦有助於 聖世厚俗之政教云

裔孫嘉善大夫行承政院都承旨 經筵叅贊館春秋館修撰館藝文館大提學平原君壽鶴謹序

### 경진보서

평창이씨는 동방(한국을 말함)에서 오래된 민족이라 중국 한(漢)나라 선제(宣帝)때에 시조께서 신라 양산촌장(楊山村長)으로 신라가 나라를 세우는데 도왔으므로 유리왕(儒理王)이 姓을 李氏로 하사했으니 옛날 중국 현원(軒轅)씨가 황제시절에 아들이二十五명이 있었으니 姓을 받은 자가 十四명이니 즉 유토(有土)·식음(食音)나 벼슬로 姓을 했으니 동방 개국공신에 사성도 대개 이런식이다

주(周)나라에 악관 사상(樂官 司商)이 음률(音律)을 정해서 성명을 제정했으니 정공(鄭公) 손회(鄭公 孫揮)가 사대부들의 성을 분별해 놓았으니 벼슬에 따라서 귀하고 천한 것과 성씨의 구별이 되니 그 유래가 오래된 것이라 한(漢)나라 지(晉)나라 이후로 씨족에 족보를 기록한 것이 역대 이후 가장 많았는데 구양수(歐陽脩)는 사관들의 연대표를 참작해서 족보를 만들었고 소로천(蘇老泉)은 7대의 부친으로 이름은 洵(洵)가례(家禮)에서 법을 취해 족보를 만들었고 황산곡(黃山谷)은 족보에 七代의 상에 의심이 나고 분명치 못한 것은 생략하고 나타내지 아니했으니 이것은 신중하게 한 것이라

우리 동방 삼한(三韓)·삼국(三國) 마한(馬韓) 진한(辰韓) 때에는 역사에 문자로 증거가 없고 신라 백제 고구려 때는 국토를 출발갈이 세 갈래로 나뉘어서 전쟁으로 국경을 정하고 역사는 완전하지 못했으니 어

찌 씨족에 족보가 있었으리요 李氏는 시조이후로 신라에 대대로 벼슬했으나 족보가 전함이 없었는 데 신라말 소판공(蘇判公)에 이르러 그 대수 차례를 기록해 놓았으니 신라에 역사를 살펴보면 대대로 벼슬한 가문을 진골(眞骨)이나 대골(大骨)이라고 부르는데 소판공의 벼슬 품계가 진골(眞骨)이므로 이 벼슬을 제수했은즉 귀족인것을 가히 알수있도다 소판공의 손자가 고려 태조를 섬겨서 대대 벼슬을 했고 남계(南溪) 선생의 아들 삼형제가 다 문장으로 큰 벼슬을 해서 각각 관향을 주었은즉 우리 선조 삼형제를 비록 소동파 三父子에 비할수는 없으나 또한 이름이 온세상에 날렸으니 자랑 할만한 것이라 고려말에 백하선생(白河先生)과 조선조에 송강선생(松崗先生)은 호당록(湖堂錄)에 들어있고 문순공(文純公)과 익평공(翼平公)과 문간공(文簡公)은 오세(五世) 다섯 임금(五君)의 사부(師傅)이고 경(卿)·판서(判書)이 八名이고 문형(文衡)·대제학(大祭學)이 四名이고 장원급제가 五名이었으니 세상이 말하 는 『셋집에 장원급제 五名이라』 동국에 명현과 공경대부(公卿大夫)·정승판서(正丞判書)와 절의(節義) 문장(文章)을 모든 명신록(名臣錄)과 문형보(文衡譜)와 필석맹부(弼席盟府)와 옥서예원(玉署藝苑)등 모든 책을 상고해보면 우리 李氏가 늘비하게 기록되어있고 모든 파들이 번성해서 한분도 위험하고 더러운 데 물들지 아니했으니 이것이 선조님의 아름다운 법과 혜택이 미친바가 아닐까 子孫된 자는 힘쓰고 계속해서 법받기를 생각하지 아니할까

옛날 족보 간행한 것이 甲申년이 百二十年이나 된지라 각파에 子孫들이 五代나 지났으므로 마땅히 추록을 해야할 것이고 또 속간(續刊)·계속해서 족보를 간행(間行)을 해야함으로 전해온 문자를 상고하고 모든 족보를 근거로 해서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하고 누락된 것을 보충하고 연대표를 침작하고 종통(宗統)·종가의 계통(系統)의 법과 구분에 미비한 것을 방주에다 첨가하되 의심나는 것을 빼어놓는 것은 또한 신중히 하는 뜻이라 정자(程子)가 말하기를 『천하에 이심을 끝이들이니 종족을 한데 모

이고 풍속을 두터이 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본을 잊지않게 한다』했으니 우리도 족보에 계통을 밝  
 히고 일가를 거두고 종자법(宗子法)·종손(宗孫)을 세워야 하는 것이니 지금 우리와 관향이 같으니 분들의  
 한몸에서 나왔는데도 변해서 얼굴을 알지 못하고 이름조차 알지 못하게 되었으니 서로 잡아먹는  
 금수에 이르지 않는 자가 드물도다 그 그본을 생각해보니 어찌 두렵지 아니할까 그러나 종법(宗法)  
 이란 비유하던데 나무에 줄기와 같은지라 나누어져서 가지가 되고 또 나누어져서 옆가지가 되고  
 굳어져서 줄기가 되는 것이니 이른바天子가 나라를 세움에 제후(諸侯)·작은나라)가 종통을 줌으로  
 서 각각 大宗 小宗과 친하고 소원하고 멀고 가까운 구별이 있어서 같은 五世면 근종(近宗)·가까운  
 일가)이라하고 같은 十世면 원종(遠宗)·먼일가)이라하니 소급해 올라가면 비록 百世 千世라도 동종  
 (同宗)·일가)인 것은 천리에 합당한 것이니 동종인즉 관향이 같은 것이므로 면목을 알지 못하고 들  
 어보지 못한 사람이라도 로인(路人)·전혀 모르는 사람)과 같지 않는 것은 족보에 계통이 분명하기  
 때문이라 사람이 조상을 높이고 그본을 중하게 여겨 호도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생겨난즉 조정에  
 위엄이 스스로 높아질 것이니 지금 세보(世譜)를 간행하는 것이 만 여례를 거두고 일가간의 친목하  
 는 것뿐 아니라 또한 세상 풍속을 두터이 하는 정치에 도움이 될것이라.

후손 가선대부 행 승정원 도승지 경연참찬관 추추관 수찬관 예문관 대제학 평원  
 군 수원은 삼가 서문을 짓노라.

# 序文

夫有姓而有譜하고有國而有史리有姓而無譜면是는如無姓이요有國而無史면是는如無國이라故  
로家有譜하야始祖兄弟分派及字號生卒官爵贈諡墓所配位行跡等事를明記하여傳至後孫하고國  
有史하야君王의善不善及當時政界人物의行蹟과國家興亡盛衰及內外政治行事等을記錄하여傳  
至後世하니私家與國家之事가事雖不同이나理則一也리豈不重且大歟아惟我平昌李氏는系出於  
始祖白鳥府院君하야以先祖之積德世蔭으로子孫이世世繁昌하야布滿八域에今至四十有餘世리  
自始祖以下로至于迄今에其事蹟이昭明傳來함은修譜遺傳之故也리若無譜면何以知先祖及宗族  
分派之事乎아我平昌李氏를東方盛族으로指稱함은無他리 自祖先以來로修譜傳來하야尊祖睦  
族之故也니譜者는開卷一覽에本支派父子兄弟官爵生卒派別等事를昭明知之하니尊祖敦族에莫  
如修譜리是譜之成深有所感于中者하야遂書此爲之하노리

檀紀四二九一年十一月 日

後孫 醫學博士 周熙 敬書

## 서문

무릇 성(姓)이 있으면 족보가 있고 나라가 있으면 역사가 있는 것이라 성이 있어도 족보가 없으면  
면 이는 성이 없는 것과 같고 나라가 있어도 역사가 없으면 나라가 없는 것과 같으니 이 때 문에  
가문에는 족보가 있어서 시조와 형제분파와 자(字) 호(號) 생졸 벼슬 시호 모소 배위 행적등을 분명

하게 기록해서 후손에게 전하고 나라에는 역사가 있어서 임금의 善惡과 당시 정계 인물의 行적과 국가의 興망성쇠와 내외 정치행사등을 기록하여 후세에 전하니 私家와 국가에 일은 비록 다르나 이치는 동일하니 어찌 중대하지 않을까

우리 평창이씨(平昌李氏)는 시조 백오부원군(始祖白烏府院君)으로부터 제통이 시작되어 선조들의 적덕으로 자손이 대대로 번창하여 팔도에 가득하니 지금까지 四十여세에 이르는지라 시조로부터 지금까지 사적이 분명하게 전해오음은 족보를 간행해서 전하는 때문이라 만약 족보가 없으면 무엇으로 선조와 일가들의 내력을 알수있을까 우리 평창이씨를 동방에서 훌륭한 가문으로 말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선조로부터 내려오면서 족보를 간행해서 조상을 높이고 일가간에 화목한 때문이라 족보란 것은 책을 펴놓고보면 큰집 작은집 부자 형제 관작(벼슬) 생졸 분파(分派) 등을 밝게 알수 있으니 조상을 높이고 일가간에 돈독하는데는 족보만한것이 없는지라 이 족보를 완성함에 깊이 감동함이 있어서 드디어 이말을 쓰노라

단기 四二九一年十一月 日(서기 一九五八年)

후손 의학박사 周熙 경서

## 序文

夫譜者上繩祖武하여以明敦孝之誠하고下貽孫謨하여以叙睦族之誼하니國之有史와家之有譜가其揆一也라惟我李氏는發源於慶州하여新羅國初에瓢公諱謁平이降于辰韓之瓢岩峰下하여與六村長으로收養朴昔金三姓하여推之爲王하고以其勳으로爲大輔佐命壁上功臣阿干하고至儒理

王時하야賜姓而仍貫焉하고其後孫이繁衍하야各其分貫하니或而襲封으로爲本하고或以居地로爲鄉하야各以分貫焉矣라然而惟吾平昌李氏는瓢公之後諱潤張一云天佑高麗初에始仕하야以大司馬大將軍으로討平泰封甄萱하고惠宗王元년에開國功臣으로封白鳥府院君하야爲貫焉也라其後至諱匡하야高麗明宗朝에太師光祿大夫吏部司事平章事封白鳥君하고至諱天驥하야官至散騎常侍하니明建極後以致命使臣으로入于明國하야討平南蠻하고還國하니國柞己替矣라守義不屈하니李太祖嘉尚其節하야封平昌君하고後至季男하야李朝燕山主時에秉忠奮義하야以靖國定難之功으로官至吏曹判書崇祿大夫封平原君 贈諡翼平公하고公之弟諱季全은官至兵曹判書하야善文雄武로時稱名將하고 贈諡憲武公하니文武相繼하야有勳於國家하고又有諱芝(改諱培)하야官至二相 贈諡靖肅公하니休退本鄉하야修道講學하고子孫이地著하야迄今二十有餘世에文獻이不絶하야稱爲東邦盛族하니此豈非祖先之勳德哉凡三十年而爲一代하니一世之修譜는萬姓通行之大規也라修譜五六次而去己未年間에僉宗諸位가巡廻各道列邑하야完成大同合譜하야以吾同宗之人으로如座一室之内하니其功莫大焉矣라自己未以後로至於四十星霜하니何修譜之晚也오日本之侵掠라解放으로因하야三十八度線이分裂하야國土兩斷하고六二五事變이有之故也라乙未秋에以修譜事로會議于宗中하니僉宗이同讚相應하야創設譜所하고通告于列邑諸宗하야越三年而訖功하니然而所可追恨者는國土分裂하야南北諸宗이未能完譜하니是可歎之事也라余忘其孤陋하고敢以參昭穆之禮하니無所逃罪나然이나以俟後君子로庶幾有禍於尊祖敬宗之道에萬一云爾

檀紀四二九一年 戊戌 十一月 日

後孫 陸軍中將 翰林 謹書

서문

무릇 족보란것은 위로는 조상의 아름다움을 이어서 돈복하고 호도하는 것을 밝히고 아래로는 자손들에게 지혜를 전하여서 일가간에 친목하는 정의를 퍼도록하니 나라에 역사가 있는것과 가문에 족보가 있는것이 그 법은 동일한것이라

우리 李氏는 경주에서 근원이 시작되었으니 신라국초에 표공 휘 알평(瓢公諱謁平)이 진한당 표암 봉아래에 강림해서 육촌장(六村長)과 더불어 박석김(朴昔金) 삼성을 길어서 왕으로 추대했으므로 그 공로로 대보좌명벽상공신아간(大輔佐命壁上功臣阿干)이 되었고 유리왕(儒理王)때 이르러 성(姓)과 관향을 하사 받았는데 후손들이 번성해서 각각 관향이 갈리었으니 후 봉호(封號)로 관향을 하고 후 거주지로 관향을 해서 각기 분관이 된것이라 그러나 우리 평창이씨는 표공(瓢公)의 후손으로서 휘 윤장(潤張)·一云天佑)이 처음 고려초에 벼슬을 했으니 대사마 대장군(大司馬大將軍)으로서 태봉(泰封·구예)과 견훤(甄萱)을 토벌해서 평정했고 혜종왕(惠宗王) 원년에 개국공신으로 백오부원군(白烏府院君)을 봉해서 관향을 한것이라 그후 휘 광(匡)에 이르러 고려 명종(明宗)때에 대사 광록대부 이부사사 평장사(太師光祿大夫吏部司事平章事)를 해서 백오군(白烏君)을 봉했고 휘 천기(天驥)에 이르러서 벼슬이 산기상시(散騎常侍)를 하였는데 명나라가 처음 나라를 세우후로 치명(致命) 사신으로 명나라에 들어가서 남쪽 오랑캐를 토벌하고 본국(고려)으로 돌아오니 국언이 이미 바뀌었는지라 의리를 지키고 굴하지 아니하니 태조(李成桂)가 그 절개를 아름답게 여겨 평창군(平昌郡)을 봉했고 그후 계남(季男)에 이르러 조선 연산주(燕山主)때에 병충분의(秉忠奮義)해서 정국정란(靖國定難) 공으로 벼슬이 이조판서 승록대부 봉 평원군 증시 익평공(吏曹判書崇祿大夫 封平原君 贈諡翼平公)에



平昌李氏 青龍公 諱 謁 平

이르렀고 공의 동생 휘 계동(季遜)은 벼슬이 병조판서(兵曹判書)에 이르렀는데 문무(文武)가 훌륭해  
 서 당시에 명장으로 칭해서 헌무(憲武)란 시호를 주었으니 문무(文武)가 계속되어 국가에 공로가 있  
 었고 또 휘 지(芝)·개명배(開名培)란 문은 벼슬이 이상(二相)·찬성(贊成)에 이르러 시호가 정숙(靖肅)인데 고향  
 으로 돌아와서 도(道)를 닦고 학문을 강마했으므로 자손들이 그곳에 안착해서 지금까지 二十여세에  
 이르도록 문헌이 끊어지지 아니해서 동방에서 훌륭한 가문으로 지칭하니 이것이 조상의 공훈 덕택  
 이 아니겠는가

무릇 三十年이 한대가 되니 한대에 한번씩 족보를 간행하는 것은 모든 성씨의 공통된 규칙이라  
 족보를 五、六차에 걸쳐서 해왔는데 지난 己未년간에 여러 일가분들이 각도각읍을 순회해서 대동  
 보를 완성했으니 모든 일가들이 한 방안에 모여 앉았는데 같으니 그 공로가 더 클 수가 없는지라  
 己未년 이후로 四十年이 되었으니 어찌해서 족보하기가 늦었는고 일본의 침략과 해방으로 인해서  
 三八선이 분열되어 국토가 둘로 갈리고 六·二五사변이 있었기 때문이라 乙未년 가을에 족보때문에  
 종종이 회의를 하니 모든 일가들이 찬성을 하고 호응을 해서 족보사무실을 설치해 놓고 각고에  
 있는 일가들에게 연락을 해서 三年이 지나서 일을 마치었으나 한가지 한스러운 것은 국토가 분열  
 되어 남북한에 모든 일가들이 능히 완전한 족보를 하지 못했으니 이것이 탄식할 일이라 내가 고루  
 한 것을 생각지 않고 족보편찬에 참가했으니 죄를 피할 수 없도다 그러나 후일 근자들로 하여금 존  
 조경종(尊祖敬宗)하는 일에 만분의 일이라도 도움이 있을까 하노라

단기 四二九一年 戊戌 十一月 日

후손 유구중앙 한림은 그서

〈註〉致命使臣... 목숨을 바치는 사신



我東方三韓之蹟既爲文獻之無徵故其詳不可得而聞也然而嘗畧涉東史惟梁部大人李公諱謁平初降于辰韓之瓢巖峯初降云者降生之謂歟詩曰維岳降神生甫及神此皆古今之所誦而不可誣者也及長至新羅徐羅伐因以佐命功臣爲阿干號瓢公至儒理王以楊山六村長爲梁部六大人各賜姓焉瓢公之李亦首於其中也傳至脫王始林之事詳載東京誌公之享壽幾至二百歲而卒其後子姓因居慶州故稱貫焉而矣至中書令諱居明各派分貫數世至諱天佑以高麗開國功臣封平城君始系平昌此豈非魯滕之分封而同祖先者乎然而余觀李氏諸譜皆以分派襲封爲祖而不及是降受姓之祖者其來也久遠世多傳失不能歷系故也噫惟我平李之氏族皆以平城君爲鼻祖而世遠人亡載籍未備故遂至欠闕之地可歎可惜又况累經兵燹漂散四方數世之墓既爲失傳此是爲雲仍者之一不幸也自太師公以下數世得傳繼錄瞻掃之禮歲一行之是於尊祖之道亦一幸也舊譜以太師別爲始祖不繼平城君抑或由遠近之親疎而然歟盖由其詳畧之不同而然也夫入本朝吾族分派各道列郡無不偏滿而况簪纓聯綿此豈他姓之所可及哉積善種德則受天之報理有所不昧者盖常侍公之子孫奠居洛中祭酒公之子孫落在西陲而分居數郡或有經學立身或有文進系出而亦不得大顯於廟堂則未免爲關西之孤陋果是運也歟命也歟譜所以傳於世徵於後千流一源萬枝同根者矣或攷各宅譜牒叅證羅麗文獻合氏族序昭穆上系于始祖者一本故也遂至於三四十者派分故也以宋朝之文明程夫子尚歎其無百年之家況以我東偏荒而李氏二千年祖孫相代系若貫珠者爲如何也哉大抵吾宗中通譜事實一沓盛矣後之人觀於斯而可徵矣寧越宗氏在祐屬余以數行序余辭以他宗中善於敘述者而固矣復曰二名各序無爲拘礙余敢忘愚拙遂書此而謹序之云

歲己未仲秋上澣

後孫 憲熙 謹書



五品至代青肅公公後譜卷之一

우리 동방 삼한에 유적은 이미 문헌에 증거가 없는고로 그 상세한 것을 들을 수가 없는것이라 그러나 일찌기 삼한에 역사를 대략 읽어보니 惟梁部大人 李謁平은 처음 辰韓 땅 瓢巖峰에 내려왔으니 내려왔다고 하는것은 檀君을 말하는가 詩에 말하기를 『오직 표암에 신인이 檀君한다』 했으니 태어나면서 神人이라 했으니 이말은 古수를 전해오면서 거짓이 아니라고 한것이라 張성함에 신라서리 벌에 이르러 좌명공신으로 벼슬이 阿干이고 號가 瓢公이라 儒理王때에 이르러 楊山에 六村長으로 양부에 六大人을 삼고 각각 姓을 주었으니 표공이 李氏가 된것이 그중 가장 먼저라 脫解王에 이르러서 始林(계림)에 사실이 상세하게 東京誌(경주지)에 기재 되어있고 공의 壽도 거의 二百세에 이르러卒했고 그후 子孫들이 경주에 살았는고로 경주이씨라 한것이라

中書令 居明에 이르러 各과가 分貫이 된것이라 몇대후에 天佑(一云潤張)에 이르러 고려 開國功臣으로 平城君을 封했으니 비로소 平昌으로 관향을 한것이니 어찌 魯、滕이 分封을 했으되 같은 조상이 아닌가 그러나 내가 李氏의 여러집 족보를 보니 다 分派와 封君으로 始祖를 하고 檀君을 해서 姓을 받은 분을 始祖로 아니한 것은 그 유래가 오래되어 많이 실적을 해 역대 계통을 능히 알지 못함이라

아! 우리 平昌李氏는 다 平城君으로 始祖를 하는데 세상이 오래가고 아는 사람이 없어서 역사가 미비하고로 드디어 누락된 대수가 있으니 가히 歎식할 일이다 하물며 난리를 겪어 四方으로 흩어져 묘소 몇곳을 실적을 했으니 이것이 後孫들의 첫째 不幸한 것이라

太師公이하 몇대를 전해온 기록으로 묘소를 찾아서 墓祀를 한해 한번씩 행사하니 이것은 조상을 받드는 도리에 한가지 다행이라 구보에는 太師公으로 별도로 始祖를 하고 平城君과 이어지지 아니

했으니 후시 遠近과 親疎가 있어서 그런것이냐 대개 상세히 알고 모르는데 있어서 그런것이랴 무  
 릇 조선조에 들어와서 우리 일가들이 각도 여러 고을에 흠어져서 앓가있는 곳이 없거든 하물며 벼  
 슬이 면면히 이어졌으니 이어져 타성이 따라올수 있을까 착함을 쌓고 德을 심음은즉 하늘에 갈는것  
 을 받는것은 이치가 분명한것이냐 대개 常侍公 子孫은 서울에 많이 살고 제주공 子孫은 西道(평안  
 도)쪽으로 낙향해서 두어 고을에 살고 있는데 후 학문으로 출세를 하고 후 文科와 진사로 출세를  
 하기도 하나 또한 조정에 현달함을 얻지 못했은즉 閩西지방이 고루하다 소리를 면치 못했으니 이  
 것이 운수인과 천명인가 족보에 대대로 전하고 후세에 증거하므로 천갈래 물결이 근원은 하나고  
 일만가지가 뿌리는 같은 것이라 후 각집안에 상고하고 신라나 고려때에 문헌을 참작해서 氏族을  
 습하고 昭穆에 순서를 밝혀 위로 始祖에 있는 것은 근본이 하나이기 때문이라 드디어 三、四十에  
 이른것은 派가 나누어진 것이라 宋나라에 文明으로도 程明道선생이 百年을 전하는 집이 없는것을  
 탄식했거든 하물며 우리 동방에 조그마한 나라에 李氏가 二千年 동안을 조상이나 자손들 서로 이  
 어져 이어지기가 구슬을 꿰것 같은니 어찌된 일이고 대저 우리 宗中이 족보를 통한 事實이니 흘림  
 한 것이라 後人들은 이것을 보고 증거삼을 것이라 영월 사는 在祐 일가가 나에게 두어 줄에 序文을  
 부탁하니 내가 他宗中에 글 잘하는 사람이 있으므로 사양하기를 굳게 했으나 다시 생각해보니 二  
 명이 서문을 하는것도 구애됨이 없으므로 내가 어리석음을 생각지 아니하고 드디어 이말을 써서  
 서문을 하노라

己未 八月 상순에

후손 현희는 근서하노라

有姓必有族姓者生而族者聚也欲知其所由生所由聚非譜無以也盖人之生冒姓雖一而族則有辨伯

袁陳姓也而其後為袁子騫閔姓也而其後為騫姜太公封於呂為呂氏晉叔向邑於楊為楊氏以國為姓者齊魯宋衛也以諡為氏者戴武宣穆也孟孫叔孫以字為氏東門西門以居為姓千塗萬轍參錯面紛亂至若京房之先李姓也牛弘之先遼姓也邾子之邾去邑而為朱疏廣之疏去足而為東者以字訛也莘變為辛奚變為稽以聲訛也如此類者甚多譜之不可以不講也明矣凡人之情於其宗族遠則疏之彌遠則彌疏之而至於忽忘也視兄之子或不若己之子己之子與兄之子自其父視之有異乎視兄之孫或不若己之孫己之孫與兄之孫自其祖視之有異乎能以父祖之心為心則己之子孫與兄之子孫不知其有異矣溯以上之從父兄弟之大父即吾大父也從祖兄弟曾大父即吾曾大夫也又溯以至於十世百世則其初一人之身也夫以一人之身而分為十百者其又可以忽忘乎譜之不可以不修也亦明矣惟我平昌之李始自麗朝遠有代序上之漢之金張晉之王謝勳文赫赫為東方盛族載在史籍班班可攷雖然後承既蕃宗誼寢疎重之以世值多故人事易變及此時敦親收族有不容玩愒者耳于是諸宗合議舊系添修雖卷帙浩大而綱條不紊左昭右穆之序小宗大宗之辨秩然整矣探其流可以知其源尋其枝可以知其根一開卷而本支派之父子兄弟科甲生卒瞭然如指掌而後人徵為文獻思所以尊祖重本母墜家聲則斯譜之作庶有補乎既以告於宗中固以自勉云爾

歲己未仲秋上澣

後孫 鍾浣 敬書

姓이 있으면 반드시 氏族이 있나니 姓이란것은 출생을 말하는 것이고 氏族이란것은 모으는 것이  
 라 그 出생을 알리고 모으는 것을 알고저 할진데 족보가 아니면 알수없는 것이라 대개 사람이 출생  
 하면 姓은 비록 하나뿐이나 氏族은 구별이 있는 것이라 伯袁의 姓은 陳氏인데 후세에 袁氏가 되었

고子騫의 姓은 閔氏인데 후세에 騫氏가 되었고 姜太公은 呂땅에 封했으므로 呂氏가 되었고 晉叔  
 向은 楊땅에 도읍을 했으므로 楊氏로 했고 나라로 姓을 한자는 齊魯宋衛氏이고 諡號로 姓을 한  
 자는 戴氏 武氏 宣氏 穆氏이고 孟孫氏 叔孫氏는 字로 姓을 했고 東門氏 西門氏는 사는 곳으로 姓  
 을 했으니 천가지 만가지 얽혀서 현란한 것이라 京房에서 가장 먼저 생긴 姓은 李氏고 牛弘에서  
 가장 먼저 생긴 姓은 遼氏 郝子에 郝는 卍를 빼서 朱氏가 되었고 疏廣에 疏는 발족을 빼서 東이  
 된것을 글자가 와전된 것이고 莘은 후으로 변했고 奚는 稽로 변했으니 소리가 와전된 것이라 이갈  
 은 것이 심히 많으니 족보를 강조하지 아니할 수 없음이 밝혀졌으니 무릇 사람의 情이 宗族에 촌  
 수가 먼즉 소홀해 지나니 더욱 먼즉 더욱 소홀해져서 孝연 잇어버리는데 이르나니 兄의 아들을 자  
 기 아들보다 못하게 생각하나니 자기 아들이나 兄의 아들이나 부모가 본즉 다름이 있을까 兄의 孫  
 子를 자기 孫子만 못하게 생각하나니 자기 孫子나 兄의 孫子를 조부가 본즉 다름이 있을까 부모 조  
 상의 마음으로 마음을 한즉 자기의 子孫이나 兄의 子孫이 다름이 있지 않음은 것이라

소급해서 올라가면 從父 형제가 大父(큰할아버지)니 곧 나의 大父고 宗조 兄弟는 曾大父니 곧 나  
 의 증조부라 또 소급해서 十世 百世에 이른즉 처음에는 一人이라 무릇 한사람이 나누어져 十과 百  
 이 되는 것이니 소홀히 잇어버릴까 족보를 가히 간행하지 아니할 수 없음이 밝혀진 것이라

우리 平昌李氏는 고려때부터 멀리까지 대수가 다 있으니 위로는 漢나라에 金氏 張氏와 晉나라에  
 王氏 謝氏처럼 공훈이 빛나서 東方에 훌륭한 가문이라 史籍에 기재되어 있어 반반하게 상고 할 수  
 있으나 그러나 후손들이 번창해서 정의가 소홀해졌고 대대로 사고가 겹친고로 人事가 변하기 쉬우  
 니 이때 친목을 두터히하고 氏族을 모으는데 구경만 할수없는지라 이에 모든 일가들이 합의를 해  
 서 윗대 계통을 닦아 놓으니 비록 책은 권수가 많으나 강령과 족목이 어지럽지 아니하고 속목에



질서와 작은집 큰집에 구별이 질서 정연하니 下流를 더듬어도 그 근원을 알리고 가지만 만져도 그 뿌리를 알수있으니 한번 책을 펴보면 本派와 支派의 父子 兄弟 등과와 生卒이 일목요연하기가 손바닥 들여다 보는것 같으니 後人들은 문헌을 증거로 해서 宗상을 높이고 그본을 증히 하는것을 생 각해서 家聲을 떨어 뜨림이 없으리 이 족보를 만든것이 도음이 있었을 것이니 이미 宗중에 告해서 스스로 힘쓰도록 하노라

己未 八月 상순에

후손 宗와는 公경히 쓰노라

夫姓之有譜猶國之有史無譜無以爲姓無史無以爲國叙族莫如譜記事莫如史家國之昭穆統緒事雖不同義則一也故曰譬之諸物水源深而流益長木根固而枝方達物皆猶然矧乎人事之得失氏族之興廢豈不由於行之一事哉惟我李氏系出於平昌始祖崇祿公以積累世蔭有散騎常侍公以後子孫綿蔓後有靖肅公致仕休退于本鄉子孫因居焉雖不得大顯或經學相續文進繼出而又有翼平憲武兩公有勳勞於王家世世簪纓可謂東方盛族也云乎哉然雲仍布濩散處年代浸遠其間譜牒修整者不止三四次尚未能大同之合譜茲用在昔先父祖之慨然于中者也以子迷劣之資非敢首論於慎重爲先之事然往在丙辰春與族兄一煥爛商譜議遠近諸宗同聲相應校讐鋟梓功厥告訖遂成卷帙吾李百代之宗誼一家之信史舍此以何哉微一煥宗人誰其與之因以爲序

歲己未仲秋上澣

後孫 豐楫 敬書

무릇 姓씨가 족보가 있는것은 국가에 역사가 있는것과 같으니 족보가 없으면 姓이있다 할수없고 역사가 없으면 국가라고 할수없으니 일가를 찾는데는 족보가 제일이고 일가를 기록하는데는 역사가

제일이니 가정에 소목이나 국가에 제통은 일은 비록 다르나 의리는 동일한 것이라 그런대로 모든 물건에 비유할 것 같으며 물은 근원이 깊으면 흐름이 길고 나무는 뿌리가 튼튼하면 가지가 무성하는 것이니 물건이 다 그러한데 하물며 人事에 得失과 氏族에 興亡이 어찌 같은 이치에 연유하지 않을까

우리 李氏는 제통이 平昌에서 나왔으니 始祖 승록공이 음덕을 쌓았으므로 散騎常侍公 같은 분이 태어났고 그후 子孫이 면면히 뻗어서 靖肅公이 있었으니 벼슬을 다 마치고 고향인 平昌으로 물러와서 살았으므로 子孫들이 인해서 살게 된 것이라 비록 大賢은 배출하지 아니했으나 후 학문이 계속해서 문과와 進士가 계속 배출했고 또 翼平公과 憲武公이 제쳐서 국가에 공훈을 세워 대대로 벼슬을 했으니 가히 東方에서 盛族이라고 말할 만 하도다 그러나 子孫들이 널리 여러곳으로 흩어져서 年代가 오래됨에 그간에 족보를 수정(간행)한 것이 三, 四차가 아니었는데 오히려 능히 같이 합보를 못했으니 이것이 先父祖께서 心中으로 슬퍼한 것이라 나같이 용열한 자질이 감히 신중히 해야 할 爲先事を 먼저 논할 수는 없으나 지난 丙辰년 봄에 족형 一煥氏와 같이 족보에 대해 난만 상의하고 遠近간에 모든 일가들과 소리를 같이 하고 협조해서 교정을 하고 인쇄를 해서 공사를 마치니 드디어 책이 된 것이라 우리 李氏의 宗族간 정의와 한 가정의 진실한 역사가 이것이 아니면 무엇이 이것만 하리오 一煥 일가가 아니었으면 누구와 같이 하리오 하고 인쇄 서문을 쓰노라

己未 八月 상순에

후손 품집은 公경히 쓰노라

### 平昌李氏世譜 本源 先系錄

三韓遺事曰辰韓之地州今慶有六村一曰闕川楊山村今臺其長瓢公諱謁平降于瓢岩峯二曰突山高墟村

今南山部 其長蘇伐都利降于兄山三曰茂山大樹村今長福部 其長俱禮降于伊山四曰背山珍支村今通仙部 其長智伯虎

降于花山五曰金山加利村今加德部 其長祇沓降于明活山六曰明活山高耶村今臨川部 其長虎珍降于金崗山

或云六祖從天而降 是為辰韓六部長也 東史曰朝鮮遺民居東海濱分為六村是為六部 漢惠帝元年丁未始祖諱謁平初降于瓢岩峯在今慶州 下與鳩峯成

赫同居遂為楊山村長居民不能斥呼號為瓢公其時悶無君長六村長會議于闕川今慶州北川 禱于天矣

漢宣帝地節元年壬子春 蘇伐公望見楊山蘿井傍如有異氣使瓢公徃視之白馬跪而嘶因忽不見只有大卵引而剖之

一英兒出收而養之姓為朴名為赫居世漢宣帝五鳳元年甲子夏四月丙辰推立為王時年十三歲國號

徐羅後改新羅 以瓢公為大輔佐命壁上功臣又為阿干慶州李氏大譜云阿餐 後因為婿至孺理王九年漢光武建武八年壬辰 改六部名仍

賜姓以楊山村為及梁部姓李高墟村為沙梁部姓崔大樹村為牟梁或漸梁 部姓孫珍支村為本彼部姓鄭

加利村為漢岐部姓裴高耶村為習比部姓薛○新莽己辰 韓地阿珍浦有老嫗見江上鵲鳴拯一石函於

中流閱函英兒出羅王聞而奇之使瓢公收養長為婿姓為昔名為脫解係朴氏為王南解王五年戊辰

漢孺子嬰居攝三年 昔脫解王望楊山瓢公宅為吉地以計取之○漢明帝永平八年乙丑羅王夜聞金城西始林間有

鷄聲遣瓢公視之如金色小櫝掛於樹梢開櫝視之英兒出收而養之賜姓金氏名曰闕智係昔氏為王也

○公之享年二百餘歲事蹟詳載朴昔金三國史公九世孫諱越成號越南先生官之中華太史光祿大夫

後孫諱居明羅朝官至中 令子金現官至兵部令子金書子襲父名字羅俗多有之如權其子仁幸直襲子直達是也 官至中原太守戶部郎中尚

神鸞宮夫人新羅敬順王金傳第三女 生二子長曰潤弘慶州李氏之先也次曰潤張一云天佑平昌李氏之先也發源出

抵則一也而同姓異貫故今依舊譜且考歷史追仰詳載焉



평창이씨세보 본원 선계록

三韓유사에 보면 辰韓(지금의 경주)땅에 여섯마을이 있었으니 첫째는 알천 양산촌(지금의 담암사)이니 촌장은 瓢公이니 휘는 謁平인데 표암봉에서 탄강했고 둘째는 돌산 고희촌(지금의 남산부)이니 촌장은 蘇伐都利니 형산에서 탄강했고 셋째는 무산 대수촌(지금의 장복부)이니 촌장은 俱禮니 伊山에서 탄강했고 넷째는 자산 진지촌(지금의 통선부)이니 촌장은 智伯虎니 화산에서 탄강했고 다섯째는 금산 가리촌(지금의 가덕부)이니 촌장은 지타니 명활산에서 탄강했고 여섯째는 명활산 고야촌(지금의 임천부)이니 촌장은 虎珍이니 금강산에서 탄강했으니(혹설에는 六村長이 하늘에서 내려옴) 이분들이 진한땅에 六부촌장이라(동사에 보면 조선에 유목민들이 동해변 六村에 살았으므로 이를 六部라 한다) 漢나라 혜제 元年 丁未에 시조인 謁平公이 표암봉 아래 내려와서 구봉 함력으로 더불어 같이 살았으니 드디어 양산촌장이 된것이라 居民들이 능히 지적해서 부르지 못하고 표공이라 하더라 그 당시 임금이 없는 것을 걱정을 해서 六村長이 알천(지금의 경주 북쪽)에 모여서 하늘에 기도를 했더니(한나라 선제지절원년임자) 蘇伐公이 양산 리정을 바라보니 이상한 기운이 있어서 瓢公을 시켜서 가보니 白馬가 풀어앉아 울고 있다가 홀연히 보이지 아니하고 다만 큰 말이 있거늘 쫓아서보니 한 예쁜아가 나오는 지라 데려다 길러서 姓을 朴氏로 하고 이름을 赫居世라 했으니 漢나라 宣帝 오봉원년 甲子년이라 여름 四月 丙辰일에 추대해서 王을 세웠다 그때 나이 十三세며 국호를 徐羅라 했다(뒤에 신라로 고침) 표공으로 大輔佐命壁上功臣을 삼고 또 阿干며슬을 삼았다 (경주이씨 대동보에는 아찬) 후일에 신라 시조왕의 사위를 삼았다 유리왕 九年에 이르러(漢光武建武八年壬辰) 六부촌 이름을 고치고 이에 姓을 주었다



양산촌을 금량부로 고쳐 姓을 李氏로 하고 고허촌을 사랑부로 해서 姓을 崔氏로 하고 대수촌을 모량부(혹점량)로 해서 姓을 孫氏로 하고 진지촌을 본피부로 해서 姓을 鄭氏로 하고 가리촌을 한기부로 해서 姓을 裴氏로 하고 고야촌을 습비부로 해서 姓을 薛氏로 했다

新莽(王莽) 己巳년에 진한땅 아진포에 한 늙은이가 江에서 까치가 지저기는 것을 보고 石函을 물가운데서 건져 함을 열어보니 예쁜아가 나오는 지라 신라 임금의 듣고 기이하게 생각해서 표공으로 하여금 갖다 길러서 장성함에 사위를 삼고 姓을 昔氏로 하고 이름을 脫解라 했으니 朴氏를 이어서 王이 되었다

남해왕 五年 戊辰(한나라유자영居攝三年)에 석탈해왕이 楊山에 표공의 집을 바라보고 吉地라고 해서 계교를 써서 빼앗았다

漢나라 明帝 永平八年 을축에 신라왕이 밤에 금성 서쪽 始林사이에서 닭울음소리가 들리는 지라 표공을 시켜서 가서보니 금빛나는 작은 독이 나무가지에 걸려 있거늘 독을 열어보니 예쁜아가 나오는지라 데려와 길러서 姓을 金氏로 하고 이름을 闕智라 했으니 昔氏를 이어서 王이 되었다

공의 향년이 二百살이 넘었다하고 사적이 朴昔 金삼국사기에 상세하게 등재되어있다 공의 九世孫 越成이 호가 越南先生이니 벼슬이 中華太史 光祿大夫에 이르렀다 후손 居明이 신라때 벼슬이 中書令이었고 아들 金現은 벼슬이 兵部令에 이르렀고 아들 金書(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이나 字를 같이하는 것은 신라 풍속에 흔히 있었다 權氏의 아들 仁幸과 直龔의 아들 直達이 그런 것이다)는 벼슬이 中原太守와 戶部郎中인데 신라궁부인에게 장가들어(신라경순왕 金부위의 제삼녀) 二子를 낳았으니 장자는 潤弘이니 慶州李氏의 先祖이고 次子는 潤張(一云天佑)이니 평창李氏 先祖이다 출발한 그원과 뿌리는 다 같으므로 姓은 같고 관향은 다른 고로 지금 구보를 근거하고 역사를 상고해서 우

러러 상세히 기록하노라

### 輿地勝覽

平昌郡建置沿革本高句麗郁烏縣于烏云新羅敬王時改白烏柰城郡領縣高麗改今名屬原州 忠烈王二十五年置縣令辛禡時陞知郡事後還爲縣令本朝

太祖元年以 穆祖考妣之鄉復陞爲郡名郁烏白烏魯山在郡北一里卽鎮山郡南二里有泗水有昌平里有吾道山有魯闕里故曰魯城郡東有平安泉郡北九里有龍淵津有水晶山地方東至旌善界四十五里南至寧越界二十八里西至原州界二十五里北至江陵界一百十里距京三百七十里

### 여지승람

평창군이 생긴 연혁은 본래는 고구려 옥오현(一云于烏)인데 신라 경순왕 때 백오내라 했는데 郡으로서 縣을 거느리고 있다 고려때 지금의 이름으로 고쳐 原州에 귀속되어있다 忠烈王 二十五年에 縣令을 두었고 禡王때에 승격을 시켜서 郡事를 두었다가 뒤에 縣令으로 되돌아 왔다 조선조 太祖 元년에 穆祖大王妣의 고향이라고 다시 郡으로 승격을 시켰다

郡 이름은 郁烏 白烏 魯山(읍북쪽) 一里니 鎮山(임)이고 郡南쪽 二里에 泗水가 있고 平昌里가 있고 吾道山이 있고 魯闕里가 있는고로 魯城郡이라했다 東쪽으로는 平安泉이 있고 九里지경에 龍淵津이 있고 水晶山이 있고 지역으로는 동쪽으로는 정선까지가 四十五리고 남쪽으로 영월까지가



平昌郡 青肅公 普

二十八里고 서쪽으로 원주까지가 二十五里고 북쪽으로 강릉까지가 百十里고 서울까지가 三百七十里다

### 判書公璽牒

謹按我先祖在麗朝爲軍簿判書此載千戶公戶籍而職牒無見存者只有唐紙職牒一通傳藏於宗人昌禧家吾家世傳云我先祖仕元朝拜都督璽牒而紙爲六疊疊畫雙行第一行七字第二行五字第三行七字第四行七字第五行八字第六極行十一字第七極行四字合爲四十八字末行押璽璽長廣針尺二寸五分印跡鮮紅不渝皮封五疊面書五大字第一字上二畫缺破上印梅查蓋其字體非篆非隸頗類釋氏之梵書字樣問諸篆家亦無解之者嘻自先祖以後今過幾百年一幅古紙得保於滄桑龍漢之餘傳以爲吾家之文貞笏者斯亦奇矣茲庸模出一本刊之譜卷以備諸宗叅考

### 판서공 쇄첩

삼가 살펴보니 우리 先祖는 고려때 軍簿判書를 했는데 이것이 千戶公 호적에는 등재 되어있고 직첩에는 나라나 있지 않고 다만 唐紙(지질)이 당나라에 제품인 직첩 한통이 일가인 昌禧氏 집에 소장되어 있는데 창희씨 말이 우리집에서 대대로 전한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 先祖가 元나라에 벼슬을 해서 都督을 배명한 쇄첩이 있는데 종이가 옥록(여섯번 접음)으로 되어 있는데 똑마다 쌍줄로 쓰여있으니 第一 첫째줄에는 七字이고 둘째줄에는 五字이고 세째줄에는 七字이고 넷째줄에도 七字

이고 다섯째 줄에는 八字이고 여섯째 줄에는 줄끝까지 이어서 十一字고 일곱째 줄에는 줄끝까지 써서 四字이니 전부가 합해서 四十八字고 끝줄에 옥쇄가 찍혔으니 옥쇄의 모양은 길고 넓어서 작은 자로 二寸五分이고 인주 자취가 선명하게 붉으나 피봉에는 묻지 아니했고 다섯째 폭에 大字 다섯이 있으니 제일 첫째 위로 두자가 떨어졌고 찢어진 위에 매화무늬에 印이 있으니 대개 글자체는 전서도 아니고 예서도 아니며 중들의 佛書 비슷하나 글자 모양을 전자 보는 분에게 물어보았으나 해석하는 사람이 없으니 슬프도다! 先祖이후로 지금까지 몇백년이 지나도록 한 폭에 고서가 상전벽해를 겪는 동안 잘 보전해서 文貞공 홀기에 쓰게 되었으니 이 또한 기이한 일이라 어리석은 내가 한 장을 묘사해서 족보에 간행해서 침중들의 참고를 삼도록 하노라。

## 跋文

우리 平昌李氏는 海東 三大姓인 慶州李氏 四十世孫으로부터 고려초에 발원하여 壹千 貳百餘年間 유구히 그 뿌리를 내려 오늘에 이르렀다.

맨처음 始祖 諱潤張 한분으로부터 代를 거듭하면서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고 하여 四十世孫까지 이르는 동안 자손이 번성하여 지금 數十萬이 나라 안은 물론 外國에 까지 흩어져 살고 있으나 문화와 경제의 발달로 아주 가까운 친척이 아니면 서로 상면하면서도 알아 보지 못하게 된 것이 古今이 同一한 실정인 바 다만 족보로서 가깝게는 당대 멀게는 十寸以上이라는 것이라도 밝힐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족보요 그 貴重함을 깨달을 것이다. 처음 족보를 시작하면서 조상님들께서 后孫에게 先代와 그때까지의 子孫들의 실상을 최대한 정확히 기록하여 전달코저 엄청난 노력으로 족보를 만들어 남겨 놓았으나 여러 차례의 전란과 병화로 인하여 소실, 훼손, 분실되어 어느 한곳에서 기존의 족보를 소장되어 있는 것을 찾아 보기 힘들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장이 되었던 것마저도 족보에 대한 소중함을 간과하여 폐기, 분실, 훼손시켜 오늘에 이른 것은 매우 애석한 것이 현실이고 그래에와서 평창이씨 十八개파의 총의에 의한 족보는 전혀 발간 된 것이 없고 몇개파 또는 한개파가 파보 발간에 머무른 것이 고작이다. 그나마도 먼 조상님들이 기록하여 후손에 남겨준 족보도 역사의 고증이 없느니 하면서 왜곡 변질시켜 대동보요 세보요 하고 종친들에게 편찬 배부한 것이 一九五〇年 이후에 발간된 족보의 실상이다.

개탄스러운 일은 우리 평창이씨도 아닌 엉뚱한 이씨들을 一九三七年、一九八四年에 어느 파에서 세보를 발간하면서 억지로 평창이씨 족보에 수록하여 후세에 전달하겠다고 하니 한심하고 부끄럽기 한이 없다.

이번 우리 정속공파에서 족보를 하면서 느낀 것은 파보、세보、대동보를 편찬 발간함이 막대한 이권(명화전 받고 책 팔고 하여)이 수반됨에 생계나 치부 수단으로 전락시켰음을 의심케 한다. 종친 여러분들께서 정확히 알고 계실것은 근래 국권회복 이후 우리 평창이씨 十八개파에서 시조를 두분(潤張、匡)으로 양분하여 족보를 발간하면서 오늘에 이르렀음을 알려드린다. 정확한 시조가 어느 분인지는 옛 조상님들께서 만들어 놓으신 족보를 보고 종친 각자의 판단에 의뢰한다. 아울러 우리 평창이씨 정속공파에서는 대동보요、세보요 하고 족보를 하지 못하고 너무 오랜 기간(四十二年 경과)이 지났음에 궁여책으로 우리파 만이라도 족보를 하자고 一九九八年 二月 정기총회 결의에 의하여 아무런 족보에 관한 지식이 없는 천학비재한 제가 파보 발간 책임자로 선임되어 부회장이 병관、총무 이범관 그의 추진위원 여러분들의 자기희생과 정확하고 타당성 있는 기록을 후손에게 물려주겠다는 열망으로 이 족보를 편찬하여 정속공파 종친 여러분께 바친다.

서기 二〇〇〇年 二月 日

평창이씨 정속공파 파보 발간추진위원장 三十五世孫 炳起

평창군 평창읍 하리 七〇一五(〇三七四)三三二一八二九六、三三二一一二六二



五二

五二

五二

五二

五二

五二

五二

五二

五二

五二

五二

五二

五二

五二

五二

五二

五二



平昌李氏 靖肅公派 派譜發刊 推進委員會



總務 李範均



副會長 李炳均



會長 李炳起



委員 李福均



委員 李泰均



宗親會長 委員 李奎燮



委員 李炳連



委員 李炳基



委員 李桂均



委員 李昌模



委員 李鎔洙



委員 李玟均



委員 李亨模



委員 李錫柱



委員 李炳漢



委員 李鎔澤



委員 李俊榮



委員 李炳泰



委員 李鍾均



委員 李和均



委員 李寬洙



委員 李海榮



委員 李舜均



委員 李鎔夏



委員 李昌均



委員 李鎔善



委員 李連均

歷代總紀

黃帝軒轅氏在位百十年

少昊 元年 丁未 八十四年

顓頊 元年 辛未 七十八年 黃帝孫 李之先顓頊後大業之裔居於隴西繼傳

帝嚳 元年 己丑 七十五年

唐帝堯 元年 甲辰 七十二年 二十五年 戊辰 檀君始立國都平壤號朝鮮

虞帝舜 元年 丙辰 六十一年

夏王禹 元年 丁巳 十七世四百五十八年王儉遣子扶婁朝塗山

殷王湯 元年 乙未 二十八世六百四十四年檀君歷一千二百十一年

周武王 元年 己卯 三十七世八百七十四年箕子出朝鮮都平壤

秦莊襄王

始皇 元年 己卯 二十三年 箕子四十一世孫 築東城抵遼東遼東畏之服屬

二世 元年 癸巳 合四十二年 甲午止

漢太祖 元年 乙未 十月五星聚東井

惠帝 元年 丁未 馬韓箕準始建國歷九百二十九年

辰韓 按東史秦亡人避役入韓韓割東界與之都慶州○是歲天降一大人於瓢巖峯下為關川楊山村長是瓢公李謁平

弁韓不知其始祖屬馬韓亦統十六國

呂太后 元年甲寅

文帝 元年壬戌後 元年戊寅

景帝 元年乙酉中元年 壬辰後元年戊戌

武帝 元年建元庚子 後元年癸巳

昭帝 元年元封 三年癸酉

宣帝 元年始 元乙未 始戊申

元帝 元年始 元癸酉

成帝 元年始 始己丑

哀帝 元年建 平乙卯

平帝 元年始 元甲子

孺子嬰 元年居 攝丙寅

新莽 元年始 始己巳

更始 元年 癸未

漢光武 元年建 武乙酉

明帝 元年永 平戊午

建昭二年甲申

衛滿孫右渠滅

新羅始祖誕降 按東史是年春慶州楊山麓有白馬跪嘶大輔瓢公往見有一卵剖之英兒出收養之姓為朴名曰赫居世號居西干

新羅始祖建國在位六十一年 辰韓自漢惠帝丁未至五鳳甲子歷一百三十八年

高句麗始建國

南解王在位二十一年

馬韓七 是歲辰韓阿珍浦有老嫗得江上石亟鵲鳴亟聞英兒出王聞奇之使瓢公收養姓為昔名脫解長因為婿

儒理王在位三十四年

脫解王在位二十四年

中元二年丁巳 八年乙丑 羅王夜聞金城西始林間有鷄聲遣大輔瓢公視之有金色小槽掛樹白鷄鳴於下取槽開視英兒出王收養之賜姓金氏名曰闕智長亦為婿

章帝 元年建初丙子

建初五年庚辰 婆娑王在位二十三年

和帝 元年永元己丑

殤帝 元年延平丙午

安帝 元年永初丁未

六年壬子 祇摩王在位二十三年

順帝 元年永建丙寅

陽嘉三年甲戌 逸聖王在位二十一年

冲帝 元年永嘉乙酉

質帝 元年本初丙戌

桓帝 元年建和丁亥

永興二年甲午 阿達羅王在位三十一年

靈帝 元年建永戊申

中平元年甲子 代休王在位四十七年

獻帝 元年初平庚午

建安元年丙子 奈解王在位三十五年

漢昭烈 元年章武辛丑

延熙十年丁卯 沾解王在位十六年

後主 二年建興

景耀四年壬午 味雛王在位二十三年

合四百六十九年止 癸未

魏咸熙元年甲申一年止

晉 秦始 乙酉

咸寧 乙未

武帝 元年泰康庚子

五年甲辰 儒禮王在位二十一年

惠帝 元年永熙庚戌

元康八年戊午 其臨王在位四年

五九

武帝	文帝	營陽帝	宋高祖	恭帝	安帝	孝武帝	簡文帝	帝奕	哀帝	穆帝	康帝	成帝	明帝	元帝	愍帝	懷帝
元年 甲午	元年 嘉甲子	元年 平癸亥	元年 和庚申	元年 熙己未	元年 安丁酉	元年 康癸酉	元年 安辛未	元年 和丙寅	元年 和壬戌	元年 和乙巳	元年 元癸卯	元年 和丙辰	元年 寧癸未	元年 武丁丑	元年 興癸酉	元年 寧丁卯

四年  
庚午 脫解王在位四十七年

十二年  
丙辰 奈勿王在位四十七年

元興元  
年壬寅 實聖王在位十六年

訥祇王在位四十二年

合一百五十五年

慈悲王在位二十二年

太宗 元年太乙巳

蒼梧王 元年元徽癸丑

順帝 元年昇明丁巳

齊高帝 元年建元乙未

武帝 元年永明癸亥

明帝 元年建武甲戌

東昏侯 元年永元乙卯

和帝 元年中興辛巳

梁武帝 元年天監壬午

文帝 元年大寶庚午

元帝 元年承聖壬申

敬帝 元年紹泰乙亥

陳高祖 元年永平丁丑

文帝 元年天嘉庚辰

臨海王 元年廣元丁亥

宣帝 元年太建乙丑

合五十九年

炤智王在位二十二年

二年庚辰 智證王在位十五年

合二十三年

十三年甲午 法興王在位二十七年

大同六年庚申 真興王在位三十七年

合五十五年

八年丙申 真智王在位四年

十一年己亥 真平王在位五十四年



長城公

元年至德癸卯

隋文帝

開皇九年己酉

煬帝

元大業乙丑

恭帝

元義寧丁丑

唐高祖

元貞觀丁亥

太宗

元貞觀丁亥

高宗

元永徽庚戌

中宗

元嗣聖甲申

睿宗

元景雲辛亥

玄宗

元開元癸丑

肅宗

元至德丙申

代宗

元廣德癸卯

合三十二年

合二十九年

六年 善德王在位十六年

二十一年 真德王在位八年

五年 太宗王在位八年

顯慶五年 百濟亡

龍朔元年 文武王在位二十一年

開耀二年 神文王在位十二年

九年 孝昭王在位十一年

十九年 聖德王在位三十六年

二十五年 孝成王在位六年

五星聚箕尾 景得王在位四年

木火金水 聚鶉首

永泰元年 惠恭王在位十六年

德宗

元年建中庚申

宣德王在位六年

貞元元年乙丑元聖王在位十四年

十五年己卯炤聖王在位二年

十六年庚辰哀莊王在位十年

順宗

元年永貞乙酉

四年己丑憲德王在位十二年

憲宗

元年元和丙戌

穆宗

元年長慶辛丑

敬宗

元年寶曆乙巳

文宗

元年太和丁未

二年丙午興德王在位十一年

開城元年丙辰僖康王在位三年

三年戊午閔哀王在位二年

四年己未神武王在位一年

文聖王在位十九年

武帝

元年會昌辛酉

宣宗

元年太中丁卯

懿宗

元年咸通庚辰

僖宗

元年乾符甲午

十一年丁丑憲安王在位五年

二年辛巳景文王在位十五年

二年乙未憲康王在位十二年

光啓二年丙午定康王在位十一年

三年丁未真聖王在位十一年

昭宗

元年龍紀乙酉

景福二年癸丑

後百濟始建國

乾寧四年丁巳

孝恭王在位十六年

昭宣帝

天祐二年乙丑

合二百八十九年

後梁太祖

元年開平丁卯

契丹耶律阿保機始建國

乾化二年壬申

神德王在位二年

均王

貞明三年丁丑

景明王在位八年

戊寅高麗太祖元年

合十六年

後唐莊宗

元年同光癸未

二年甲申

景哀王在位四年

明宗

元年天成丙戌

二年丁亥

敬順王在位九年

王之女神鸞公主駙馬李金書子潤弘潤張

潞王

元年天泰甲午

敬順王禪位麗太祖

二年乙未

新羅亡歷九百九十二年

合十三年

後晉高祖

元年天福丙申

高麗太祖

統合三韓在位二十六年○後百濟亡

齊王

天福八年癸卯

惠宗王元年

李潤張閔國功臣封平城府院君

閔雲三年丙午

定宗王元年在位四年

合十一年

後漢高祖

仍稱天福十二年丁未

契丹改國號為遼

隱帝

乾祐三年庚戌

光宗王元年在位二十八年

合四年

後周太祖

元年廣順辛亥

世宗

顯德三年乙卯

宋太祖

元年建隆庚申

太宗

元年太平丙子

乾德五年丁卯

三月五星聚奎

合九年

景宗王元年在位六年

七年壬午 成宗王元年在位十六年

穆宗王元年在位十二年

祥符三年庚戌 憲宗王元年在位二十二年

九年辛未 德宗王元年在位三年

景祐二年乙亥 靖宗王元年在位十二年

慶曆七年丁亥 文宗王元年在位三十七年

仁宗

元年天聖癸亥

真宗

元年咸平戊戌

英宗

元年始平甲辰

神宗

元年天聖癸亥

哲宗

元年祐元丙寅

徽宗

元年建國辛巳

元豐六年癸亥 順宗王元年在位一年

七年甲子 宣宗王元年在位十一年

紹聖二年乙亥 獻宗王元年在位十年

三年丙子 肅宗王元年在位十年

崇寧五年丙戌 睿宗王元年在位十七年  
宣和五年癸卯 仁宗王元年在位二十四年  
三年乙巳 李匡生

欽宗

元年靖  
康丙午

高宗

元年建  
炎丁未

紹興十七  
年丁卯

孝宗

元年隆  
興癸未

光宗

元年紹  
熙庚戌

寧宗

元年慶  
元乙卯

理宗

元年寶  
慶乙酉

度宗

元年咸  
淳乙丑

恭帝

元年德  
祐乙亥

端宗

元年景  
炎丙子

少帝

元年祥  
興戊寅

元世祖

元年至  
元庚辰

成宗

元年元  
貞乙未

武宗

元年至  
大戊申

仁宗

元年延  
祐甲寅

毅宗王元年在位二十四年

乾道七年辛卯  
明宗王元年在位二十七年  
李匡大師光祿平章事封白鳥君

神宗王元年在位九年

四年戊午  
熙宗王元年在位五年  
開禧元年乙丑

庚宗王元年在位二年

嘉定五年壬申  
高宗王元年在位四十六年  
李堅官典書郎平城君月城府院君與崔得秤同司錄

七年甲戌  
元宗王元年在位十五年  
景宗元年庚申  
李承衍靖國功臣平章事平城君

忠烈王元年在位三十四年  
李稠翊戴佐理功臣平城君二十六年庚子李台生

合三百二十年  
己卯止

二年己酉  
忠宣王元年在位五年

忠肅王元年在位十七年  
十一年甲子李天驥生

英宗

元年至  
治辛酉

定帝

元年泰  
定甲子

文宗

元年至  
順庚午

順帝

元年元  
統癸酉

明太祖

元年洪  
武戊申

太宗

元年永  
樂癸未

仁宗

元年洪  
熙乙巳

宣宗

元年宣  
德丙午

二年 忠惠王元年在位一年 六年丙子李 台 辛未 中部監事令同正

三年 忠肅王後元年復位八年 壬申

至元六年 忠惠王後元年復位五年 年庚辰

至正五年 忠穆王元年在位四年 年乙酉

九年 忠定王元年在位三年 李 星成均祭 乙丑 酒謚 文景公

十二年 恭愍王元年在位二十三年 李 瑜 壬辰 平章事

合八十八年 丁未 止

八年 辛耦元年在位十四年 李 桔 封 乙卯 啓仁君

二十二年 辛昌元年在位一年 年乙巳

二十三年 恭讓王在位二年 李 天驥 以致命使入天朝 年庚午 歷四百七 十五年 討平南蠻拜散騎常侍

二十五年 朝鮮太祖開國元年在位七年 李 天驥 特 年壬申 封平昌君

建文元年 定宗王元年在位一年 年乙卯

三年 太宗王元年在位十八年 辛巳

十七年 世宗王元年在位三十二年 李 森翰 李 永瑞 校理世子右 林至 直講 文學 載國朝湖堂錄

世宗王元年在位三十二年

英宗 元年正統丙辰  
景帝 元年景泰庚午

英宗 元年天順丁丑復位  
憲宗 元年成化乙酉

孝宗 元年弘治戊申  
武宗 元年正德丙寅  
世宗 元年嘉靖壬午

穆宗 元年隆慶丁卯  
神宗 元年萬曆癸酉

光宗 元年泰昌庚申  
熹宗 元年天啓辛酉  
毅宗 元年崇禎戊辰

清崇德元年 丁丑

二年 辛未 文宗王元年在位二年

四年 癸酉 端宗王元年在位二年 李季旬靖難功臣贊成兵判諡文烈公

七年 丙子 世祖王元年在位十四年

五年 己丑 睿宗王元年在位一年

六年 庚申 成宗王元年在位二十五年 李培直長至二相諡靖肅公 ○李季全輔國崇祿領中樞靖國功臣諡憲武公

八年 乙卯 燕山王元年在位十一年

中宗王元年在位三十九年 李季男靖國功臣崇祿史判平原君諡翼平公子 李敬靖國功臣提學工判平川君

二十四年 丙午 仁宗王元年在位一年

二十五年 丙午 明宗王元年在位二十二年

二年 戊辰 宣祖王元年在位四十一年 李取以經行薦授洗馬

李思命嘉義摠管諡剛武公

三十七年 己酉 光海王元年在位十四年

三年 癸亥 仁祖王元年在位二十七年 李昌煥以學行薦授洗馬 李澤資憲振武功臣平原君

合二百十九年 丙子止

世祖 元年順治甲申

七年 孝宗王元年在位十年 平原君李壽熈 遺禮官致祭

聖祖 元年康熙壬寅

十四年 肅宗王元年在位四十六年 李泰錫弘文館提學

世宗 元年雍正癸卯

三年 英宗王元年在位五十二年 李光溥崇祿同中樞 奉朝賀

高宗 元年乾隆丙辰

英宗王 四十四年 戊子 遣臣致祭于李 肅不遷祠宇

仁宗 元年嘉慶丙辰

六年 純祖王元年在位三十四年

宣宗 元年道光辛巳

十五年 憲宗王元年在位十五年

咸豐元年辛亥

三十年 哲宗王元年在位十四年

同治元年壬戌

三年 太皇元年在位四十三年

光緒元年乙亥

二十二年 丁酉 光武元年 國號大韓

三十三年 丁未 隆熙元年在位四年

宣統元年己酉

合二百七十四年

李光專入清白史錄 ○李正薰文科翰林時有八科 上親善賜曰一門八科豈其偶然哉 ○李晦斗以經行



韓日合併 明治四十三年

宣統元年 大正 大正十四年

三 昭和 元 丙寅

二 解放 乙 昭和十九年 西

大韓民國政府樹立

三 甲午

同治元年

宣統元年

合二百三十四年

禮紀四二四三年  
西紀一九一〇年

禮紀四二五八年

宣統元年

禮紀四二五九年

光緒元年

禮紀四二七八年八月十五日  
西紀一九四五年

戊子 一代大統領 李承晚

至 戊戌 禮紀四二九一年

禮紀四二八一年

三十 宣宗王 永年 五十四年

十五 宣宗王 永年 五十五年

六 宣宗王 永年 五十四年

五 宣宗王 永年 五十四年

三 英宗王 永年 五十二年

六 宣宗王 永年 五十四年

十四 宣宗王 永年 五十四年

十四 宣宗王 永年 五十四年

十 宣宗王 永年 五十四年

十 宣宗王 永年 五十四年

○ 宣宗王 永年 五十四年

行列字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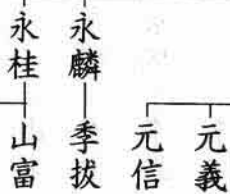
○ ○ 煥 勳	五十世	○ ○ 柱 相	四十四世	○ ○ 演 洙	三十八世	鉉 鍾 ○ ○	三十二世
埼 在 ○ ○	五十一世	炯 夏 ○ ○	四十五世	柱 和 ○ ○	三十九世	○ 浩	三十三世
○ ○ 銖 鉦	五十二世	○ ○ 培 珪	四十六世	○ ○ 烈 熾	四十世	○ ○ 根 模	三十四世
	五十三世	鏞 鎬 ○ ○	四十七世	時 載 ○ ○	四十一世	熙 炳 ○ ○	三十五世
	五十四世	○ ○ 河 泰	四十八世	○ ○ 善 錫	四十二世	○ ○ 基 均	三十六世
	五十五世	柄 東 ○ ○	四十九世	濟 淳 ○ ○	四十三世	鎮 鎔 ○ ○	三十七世



# 謁平公 後系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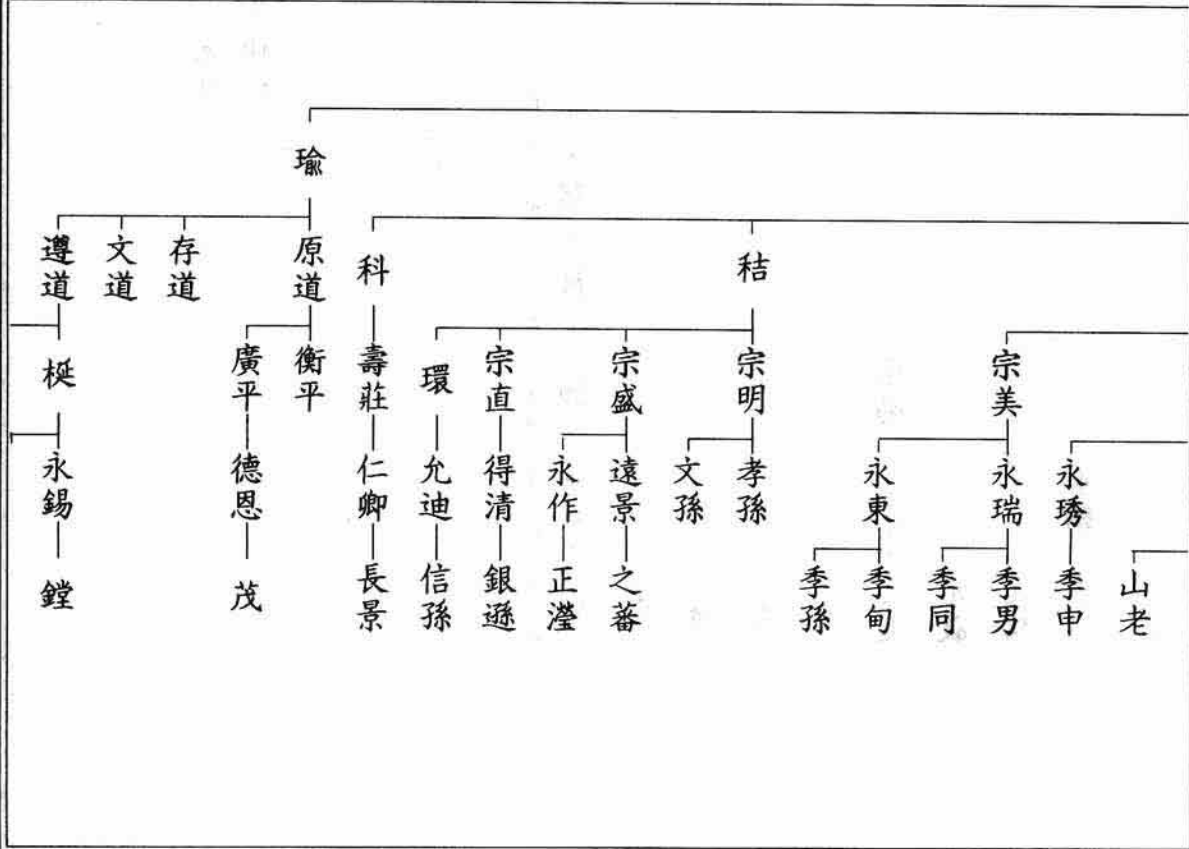
居明	三十七世	駿	二十五世	元立	成立	十三世	謁平 <small>新羅佐命 壁上功臣</small>	一世
金現	三十八世	紹	二十六世	曜	曙	十四世	侑	二世
金書	三十九世	敬智	二十七世		啓烜	十五世	宓	三世
潤張	四十世	俊 頊	二十八世	侁	傑	十六世	仲嘉	四世
평창 경주 白鳥府院君始貫平昌		元長	二十九世	赫	宣璋	十七世	爽	五世
		漢老	三十世		基瞻	十八世	儒理	六世
		秀湯	三十一世		仁興	十九世	文祥	七世
		禔	三十二世	樂	橫	二十世	昉 昉	八世
		嗣彥	三十三世	光王	善禎	二十一世	秀章	九世
		岐	三十四世		棣	二十二世	綏	十世
		辰斗	三十五世		泰暉	二十三世	起貞	十一世
		誠	三十六世		友榮	二十四世	美善 之廉	十二世

# 平昌李氏 先系圖



平昌李氏先系圖

Handwritten text in the upper section of the page, likely a preface or historical notes.



克寬—仁美—成老—肅—元—特仁—致

錫山 孝宗 孝孫 貴孫

義生—茂昌—淑蕃

宏—晟—達漢—雅

森—達孫—德生

承錫—載魯  
允錫—鏗

叢

苞

峇 巖 崙 徽 峇



Vertical text on the right edge, possibly a page number or chapter indicator, partially obscured.

Vertical text columns on the right side of the page, including characters like 天, 地, 人, 神, 鬼, 妖, 魔.

Vertical text columns in the middle of the page, including characters like 山, 水, 風, 雲, 霧, 霞, 虹, 霓.

Vertical text columns on the left side of the page, including characters like 龍, 鳳, 麟, 鳳, 龜, 蛇, 兔, 鹿, 羊, 馬, 牛, 雞, 犬, 豬, 猴, 猿, 熊, 虎, 豹, 豺, 狼, 狐, 兔, 鹿, 羊, 馬, 牛, 雞, 犬, 豬, 猴, 猿, 熊, 虎, 豹, 豺, 狼, 狐.

平昌李氏靖肅公派譜 卷之一

始祖

諱潤張 윤장

一云諱天佑

高麗太祖朝官太師

公始仕光祿大夫

開國功臣大司馬

白鳥府院君諡文

成公號白稚

惠帝元年癸卯仍貫

焉

配鷄林朴氏昌德夫

人生一男五賢殿

配享

二世

子仲 중

官國子監光祿大

夫中華令

高麗太祖開國功臣

二等勳

配昌 郡夫人清風

金相睦女生二男

三世

子鎰 일

官集賢殿太學士

銀紫光祿大夫侍

中

配光山金氏紫光輔

國夫人

四世

子宛 완

官兵部侍郎兵部

中尉

配文化柳氏生一男

五世

子忠德 충덕

官兵部郎中侍中

太尉

六世

子雲峰 운봉

官至國子監登本

朝常侍侍中文章

德行智勇過人累

遣入朝使持節壯

意而封大司馬大

將軍公辭還古國

卒享年八十

配 淑敬國夫人南

陽洪氏生一男

七世

子善招 선초

高麗光祿大夫集賢

殿太學士銀紫光

祿大夫壁上功臣

吏部司事巡問使

角于號集翠五賢

殿配享

配漢陽趙氏昌淑

夫人生一男

八世

子匡 見同

善招

匡 광 見同

高麗仁宗乙巳三月

二十日生

明宗朝官至太師光

九世

子仲仁 중인

字仲思官至招賢

誠亮

節問德招致贊化

十世

子作林 작림

官至典理總管司

錄

高麗高宗庚辰封橫

十一世

子堅 견

字君寶

高宗己亥魁成均試

三登大科與崔得

十二世

子承衍 승연

元宗朝官至檢校中

丞右宣少尹平章

事封平城君

十三世

子稠 주

元宗朝登第

忠烈朝為密直使從

元子如元有功官

十四世

子台 태

忠烈王二十六年庚

子生

忠肅王七年庚申監

十五世

子天驥 三下



八世 九世 十世 十一世 十二世 十三世 十四世 十五世

祿大夫樞密院府  
事吏部司事東北  
兩都巡問使平章  
事封白鳥君

毅宗庚寅四月十六  
日卒

配昌國夫人韓山李  
氏乙巳三月十一

日生父仁育庚寅  
四月十日卒○墓

江原道伊川郡古  
味吞面金坪里後

山辛坐合兆

事蹟具載權氏萬  
姓譜及張氏簪纓

世譜○墓所失傳  
久矣乙未秋幸得

古碣改封而立碑  
焉

壁上功臣三重大  
都政丞封門下侍  
中諡文忠公公弱  
冠以成均壯元登  
第未滿四十升擢  
台座時人望之如  
山斗○基金坪里  
後山辛坐牧隱銘  
其墓曰道德之首  
文章之宗功在社  
稷澤流生民  
配郡夫人權氏合兆  
同時改封

# 穆祖大王

城君○基金坪里  
後山辛坐同時改  
封

## 子克寬

官典書

秤同司錄位至推  
誠保社功臣典書  
郎

## 子仁美

官校理郎

## 子成老

國勇誌世蹟詳錄

至中書侍郎推忠  
翊戴佐理功臣封  
平城君

配完山郡夫人李氏  
父琦○墓伊川

郡古味吞面龍淵  
洞癸坐附

太王壬午後孫奎華  
尋得古碣而改封

焉後乙未秋堅碑  
坐合堂

## 子肅

璿源錄諱公肅仕  
元朝官千牛衛長  
史

配突山郡夫人鄭氏  
父諱碩

太祖即位後追封魯  
山府院君立祠于

本郡賜錦袍屏  
角帶使每歲兩節

日  
命官享祀

試  
忠惠王丙子通仕郎  
染署令同正○常  
待公科榜公職卿  
書以中部監事

配全州金氏父司憲  
糾正郎將芮他譜  
書以全州李氏更  
考○墓伊川郡古

味吞面龍淵洞癸  
坐合堂

## 子宏

麗朝奉翊大夫鷹揚  
軍上護軍軍簿判  
書

中朝拜大都督豐燦  
在平壤宗人昌禧  
家

## 子元

忠肅王時推忠翊運  
功臣官僉校理禮  
寶寺孫貴孫

弘治二年乙酉式戶  
籍四世昭詳

## 子瑜

一一下

## 子晟

一三下

## 子特仁

一四下

## 女李唐烈

## 女○○○

子安川大君於僊

翼祖大王

台

天驥 천기

初諱 玠 號白河

忠肅王甲子生

忠穆王元年乙酉魁

生員試

恭愍王四年乙未中

乙科

大明建極後以致命

使臣入朝

天朝乃有南蠻之亂

公卿詳視公之文

武備具智勇兼全

可任大事合奏天

子即令招視之則

過人之雄才也賜

之駿馬一匹劔甲

一件使之馳聘則

果一世之英雄也

即賜大將印紳即

發討蠻與蠻相戰

數月不還遂之南

十六世

子 桂 육

洪武乙丑三月三日

生

辛耦十一年文科

本朝嘉善大夫閔

國功臣慶州府尹

積德補祚完難入

北侍從勳二等諡

忠節號松崗先生

自幼時好學論經

多習而以文獻以

世彰名著學遺詩

集己巳三月十七

日卒

配貞烈夫人慶州崔

氏丙寅正月十七

日生庚戌三月二

十八日卒父溫水

監務通祖判衛瑞

雲曾祖司宰隰

墓楊州文介谷有

十七世

子 韻 운

一云宗韻三和縣

事

配淑人高麗王氏父

副令休

十八世

子 永祥 영상

文監察

奉訓郎行康津縣

監成宗十一年庚

子九月卒墓忠南

公州郡灘川面松

鶴里松谷乾坐

配淑人江陵金氏父

判官淑篋祖號松

塢右議政丞露曾

祖號節亭諡忠節

公斯革外祖密陽

朴剛生

十九世

子 萱 훤

司直

配淑人原州元氏父

司勇

子 莞 완

僉正

配淑人原州元氏父

護軍昇祖司直德

秀曾祖長興府使

訓外祖竹山安復志

系配淑人長水黃氏

父郡守事親祖判

中樞胡安公致身

曾祖領議政翼成

公喜外祖茂松尹聃

子 芝 지 二卷 一

改諱培

正統甲子生

二十世

英宗戊子重修祠宇  
命禮曹追 賜冠服  
遺侍臣金履正致  
御製替侑焉己未冬  
後孫梓榮奉安于  
北青陽化面

二十一世

子安原君珍  
子安豐君精  
子○○○○  
子安昌大君梅拂  
子安興大君球壽

二十二世



Vertical text on the left margin, partially obscured.

十五世  
十六世  
十七世  
十八世  
十九世  
二十世  
二十一世  
四  
二十二世

蠻二年伐降其國而還

不遷祠宇宗承平川君祠

皇上嘉尚其功原拜散騎常侍公以死自誓辭職不行

世宗大王御製松鶴亭永慕軒

帝曰卿何為其辭公伏奏曰臣若行職故國難還君臣一品上不瞰日月之下難跳江山之美以一世之寸功去萬世之

成化二年九月一日賜額希賢閣思月齋兩朝賜額主享

高義耶

帝曰職之一品背功臣之德乎加朝鮮王金紫光祿大夫更勿辭焉因賜名焉後三年而還則國祚已替矣遂感吟曰漢水烟霞閣勝地松京花草沒荒塵故宮落月餘殘魄新市悲風摠暮春垂帷三年與世不通

太祖嘉尚其節封平昌君事載輿地勝覽公之平時與國隱治隱每相友善赴中朝時國隱有贈別詩云書生手中劍照膽光芒新

世祖丙戌初仕宣教郎成宗戊申禮賓寺直長燕山主時累諫見棄見李清被竄與朴遂良同時致仕退居于本鄉修道講學與佔畢金公從遊

中宗時連徵不起後以司直超至二相贈謚靖肅公事蹟惟載家乘而壬辰後舊本見失兵燹墓碑只有官諱而生卒正德甲戌三月十日卒享年七十一名德參考已泯姑從碣書見存收錄基本郡南德昌乾坐舊碑正德十六年改立嘉靖十六年四月配貞夫人蔚珍張氏系配貞夫人安東權氏基平昌郡平昌面柳洞里德昌乾坐合兆

子采

子朴默

子朴渾

子朴淹

子朴滄

子朴德

子朴通

子朴德

咸陽人純陵參奉贈史曹正郎光州牧使 培子

輔國大提學士軒礎玄孫

高麗尚書善後

女朴文弼

贈史曹參議

贈史曹參判

贈史曹參議

贈史曹參判

贈史曹參議

贈史曹參判

贈史曹參議

贈史曹參判

贈史曹參議

贈史曹參判

贈史曹參議

渡海謁天子乘舟  
 辭故人秋風禮城  
 港明月楊子津好  
 去勤王事歸來莫  
 遠巡載本集  
 配貞敬夫人廣州金  
 氏基長湍郡東道  
 面花田馬場于甲  
 坐合兆

子宗陽 종양

女鄭自洋

延日人吏曹參議  
 父兵判淵

子永富 보부

進士  
 配安東金氏父承旨

子永麟 영린

豐儲倉主簿  
 配光州金氏父大興

女李鐵堅

慶州人武贊成

女趙軫

忠義

女金沂

子鄭溥掌苑

子鄭解參奉

子鄭瀨校尉

子鄭洽縣監

子元進 원진

子元義 원의

通訓大夫忌正月  
 一日

配淑人蔚珍林氏忌

七月一日基杆城

郡竹旺面蘆坂洞

壬坐合兆

子元信 원신

配慶州金氏基杆城

郡竹旺面蘆坂洞

合谷癸坐合兆

子季拔 계발

進士

甲戌十一月十八

五

十五世

十六世

十七世

十八世

十九世

二十世

二十一世

六

二十二世

縣事季文○墓龍仁松谷

日生丙子十二月二十一日卒享年六十三○墓龍仁松谷坐

配宜人慶州金氏

父金山郡守世良

○墓松谷同原同坐

子永桂 영계

永安府使

配貞夫人義城金氏

辛耦末緣於兵燹

移于北青子孫仍居

子山富 산부

鍾城府使

○墓咸境南道北青郡德城面竹田

山加德洞子坐

配貞夫人密陽朴氏

丁丑十一月十七

日生乙亥十一月

二十九日卒○墓

德城社加德洞同坐雙兆

子山老 산로

子季申 계신

通訓大夫行軍資

監正謫任于平安

北道楚山郡後累

微不上京仍老于

此郡子孫遂居焉

○墓本郡東面多

有墓表

子永琇 영수

從子下去楚山○

墓東面中章吐里

# 桓祖大王

## 子宗美 증미

通訓大夫行敦寧府丞  
 贈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兼判義禁府事  
 配 贈貞敬夫人全州李氏父判府事澄祖義安大君和曾祖○○○外祖平州事昌原黃昌基楊州郡瓦阜面月文里文介谷同兆

## 子永瑞 영서

字錫類中生員試世宗朝甲寅謁聖文科初選集賢殿丁巳爲著作陞校理兼世子右文學倡明儒道著務本堂希賢堂銘文有送翰林金係熙朴相公仁叟倪司馬詩及無絃琴等詩在東文選詩有八文章公居其一與洪應崔恒徐居正同賜暇潮堂見曹偉記詩文筆法流入中國爭艷墓云號希賢堂早卒以兩子貴贈孫忠積德補祚功臣領議政平原府院君○墓文介谷自豐德移葬墓碣書以禮正忌六月二十五日

## 子季男 계남

字子傑號清雲正統戊辰生秉忠奮義翊運靖國功臣崇祿大夫行吏曹判書兼判義禁府事封平昌君贈謚翼平公年十九初仕至郎曹後中甲午司馬由中丞擢銀臺歷吏戶議階嘉善拜大司憲觀察三通階資憲判戶曹知遇成廟與佔畢金公相許燕山時累觸忤幾危丙寅靖國後進崇政崇祿連拜吏戶判歷事光廟以下五朝稱文武全才正德丙寅三月二日卒享年六十五

配貞敬夫人廣州安氏父牧使處善曾祖郎將鼎生一女忌三月六日○墓

豐德 贈貞敬夫人 系配 贈貞敬夫人 上黨韓氏父咸吉

贈領議政版圖判書 樞璠曾祖

配貞敬夫人坡平尹氏忌二月十八日父靖難佐翼功臣禮曹判書大提學成安公士昀祖 贈 領議政行判中 樞璠曾祖 贈領議政版圖判書

十五世

十六世

十七世

十八世

十九世

二十世

二十一世

八

二十二世

道觀察使惠祖間  
國功臣領議政文  
簡公尚敬曾祖弘  
文館大提學文敬  
公修外祖判中樞  
昌寧成達生○基  
文介谷異兆

承禮外祖副正水  
原崔義儉○基文  
介谷異兆二樂申  
用溉選神道碑有  
不違祠宇

子季同 계동

武科輔國崇祿大  
夫領中樞府事諡  
憲武公簪叢洪裕  
孫稱公文武全才  
且有隱德卓節云  
二十九拜大司憲  
擢兵判爲國朝名  
臣與佔畢金公酬  
唱赴京過長城詩  
及南道巡撫時在  
路遭彈詩俱膾炙  
於人口號東湖有  
文集○基仁川蘇  
萊面大也里蘇萊  
山桂壽里上谷亥  
坐  
配貞敬夫人楊州趙  
氏父府使遵祖文  
科監察瓚曾祖領  
中樞求生外祖兵  
使河濱李菌○基  
或云在楊州文介  
谷近處又在交河  
云

女李繼孫

序一父判書依仁

驪興人文判書  
子季之和司評

女盧公著

父領議政思慎

交河人 叅奉

女柳輕

文化人 文陽君  
父監察白濱

系子柳思宗

子永東 영동

世宗朝成均試進士

長湍府使贈崇祿

大夫工曹叅判

子季旬 계진

甲寅生

端宗朝官至輪忠衛

社協贊靖離功臣

崇政大夫行兵曹

判書兼義禁府都

事黃海道觀察使

歷兵刑工叅左贊

成兼判義禁府事

封西院府院君諡

文烈公

配貞夫人慶州金氏

父左贊成鷄林君

柵祖崇祿副政丞

智允

子季孫 계손

生員通訓大夫長

湍府使

配安東金氏

系配長城徐氏



十五世  
十六世  
十七世  
十八世  
十九世  
二十世  
二十一世  
二十二世

子結 갈

辛耦時仕至啓仁  
君洪武初緣於兵  
燹入于北青公之  
職牒與  
配位姓氏入于回祿  
故不能記之墓北  
青郡德城燧燧洞  
甲卯坐雙封

子宗明 증명

禦侮將軍墓北青  
老德北上碧鳥洞  
甲坐

子宗盛 증성

府使  
移于安邊郡累經  
兵火墓失傳

子宗直 증직

墓考墓青龍內甲  
坐第一

子環 환

字白璠始仕我朝  
官至司憲府執義  
配淑人延日鄭氏父  
左丞旨日兌

女閔義生

驥興人判書

子孝孫 효손

子文孫 문손

子遠景 원경

判官

子永作 영작

墓在安邊郡衛益  
面東里家後麓卯  
坐

子得清 득청

配坡平尹氏墓合兆

子允迪 윤적

字聖心官至禮曹  
參判全羅觀察使  
配貞夫人南原徐氏  
父戶曹正郎尚均

子之蕃 지번

郡守

子正澄 정형

墓在安邊郡衛益  
面衛東里家後麓  
卯坐

子銀遜 은손

配密陽孫氏墓在本  
面衛北里龍雲洞  
艮坐

子信孫 신손

字士官丞旨  
配淑夫人南陽洪氏  
父正言祖萬榮○  
墓平安南道江東  
郡晶湖面花岡里  
盆池山乾坐合兆

子科 科

麗朝忠穆王丙戌三月七日生官司直  
隨常侍公隱居累  
徵不赴時人美其  
高節號稱居士丙  
子七月十三日卒  
墓失傳

子壽莊 수장

麗朝恭愍王辛丑十月十四日生臨坡  
縣令甲申十一月  
五日卒墓失傳

子仁卿 인경

辛耦丁巳九月五  
日生和州郡事  
纓譜云郡守壬辰  
三月二十八日卒  
墓失傳

子長景 장경

太祖甲戌十一月十  
日生官慶州牧使  
乙未十月十九日  
卒墓失傳

瑜

유 二上

忠肅王十五年戊辰  
生  
恭愍朝平章事中元  
朝制科遺蹟載與  
地勝覽東國史

子原道 원도

子存道 존도

司醞直長

子文道 문도

子衡平 형평

子廣平 광평

女張田義

女鄭壽山

女金思義

楊州人春川府使

女尹增

子德恩 덕은

基伊川郡東面回  
山國祀堂峴  
公始入伊川子孫  
仍居焉

子鄭孝誠 縣監

子金起宗 護軍

子金起荆

子金起均

女權節 校理

與生六臣同時不  
屈節

子茂 무

一云武

十五世

十六世

十七世

十八世

十九世

二十世

二十一世

二十二世

子遵道 준도

子樅 천

成均試生員

子永錫 영석

子鏗 당

基伊川郡鶴鳳面  
星湖里炭踰洞子  
坐柩

配全州崔氏父澄  
○基伊川吾道洞  
已坐

子允錫 윤석

子鏗 강

將士郎

通訓大夫義陵叅  
奉

中宗丙子生丙寅五  
月九日卒

配安東金氏忌十二  
月十日○基伊川  
郡廳浦里合兆

明宗丙午八月十一  
日生忌四月二十  
四日卒廳浦里山

配淑人陽川許氏忌  
三月二十四日基  
上原同兆

字繼允

字聖甫

配安東權氏

通政大夫○基部  
商面禾日村安山  
庚坐

子承錫 승석

子載魯 재로

字繼允

通政大夫○基部  
商面禾日村安山  
庚坐

配安東權氏

通政大夫○基部  
商面禾日村安山  
庚坐

子森 삼

子達孫 달손

參奉

子德生 덕생

義禁府都事祖父  
上京之日留落永  
川子孫因居焉基  
永川郡内西面老  
田化龍洞馬峴西  
麓甲卯坐雙墳

世宗戊午文科翰林  
謫任永川郡守郡  
南江上起連河亭  
菰滿上京后官至  
成均館直講

麓甲卯坐雙墳

宏

# 晟

성 二上

宣授宣武將軍管軍萬戶舊草譜以丞旨見錄而前譜從戶籍書本御麗史公弱冠登第窮討墳典所至學者如雲人謂之五經筓官至成均祭酒謚文景公有退老詩云藥砌清風期我老竹溪明月誘吾情前霄已決歸田計雪盡江南匹馬行因謝職歸鄉里將相故友祖道餞之

# 子達漢

달한

本朝奉翊大夫安州牧使載平壤誌配彥陽金氏父門下侍中彥陽府院君敬直祖貞烈公倫莊敏公趙瑞之外孫

# 子雅

아

宣節將軍平壤道右翼江西管軍千戶配崔氏父二相丁智祖判書恩儉戶籍在平壤宗人昌禧家

# 子苞

포

生員一等宣教郎江界義州教授載平壤誌配星州玄氏父精勇中郎將鴻漸祖彥曾祖門下評理琇高祖生員浩然

# 子岩

초

渭原郡守訓諫參軍洪熙乙巳生別侍衛禦侮將軍行護軍配黃州黃氏父司醞直長同正守裳祖中直大夫郭山郡守碩齡曾祖中政大夫繕工令維善外祖彰信校中領中郎將平海丘榮烈基江西郡十里許角卯鄉里北麓壬坐

# 子徽

휘

# 子崙

운

# 子巖

암

# 子峇

은

護軍

成化元年武科

# 子叢

총

萬戶

# 女田德成

判書

# 子田甫

判事

十五世

十六世

十七世

十八世

十九世

二十世

二十一世

一四

二十二世

元  
特仁 특인

官禁衛郎中

二上

子致 치

官副司成公始移  
于北青子孫仍居焉

配淑人昌原玄氏永

起女墓北青小陽

化昌上里寺洞唐

峙子坐祔有碣

女權裏

贊成

安東人父左政丞

謚清簡公諱偉

女禹承慶

子義生 의생

宣教郎墓大陽化

初里大尾泥乾坐

祔有碣

子貴孫 귀손

丞訓郎

配順興李氏貴生女

墓上同乾原祔有

碣

子孝孫 효손

子孝宗 효종

子錫山 석산

子錫山 석산

子權存禮 大護軍  
子權護 參判

丹陽人

子茂昌 무창

宣教郎墓大陽化

初里大尾泥乾坐

祔有碣

子淑蕃 수번

行義興衛奉功將

軍

配李氏父承陽墓小

陽化要洞城峴癸

原祔有碣

西紀二〇〇〇年(庚辰)  
西紀二〇〇〇年(庚辰)

三月

日

發行  
印刷

發行處

平昌李氏靖肅公派譜編纂委員會

江原道平昌郡平昌邑下里

電話三三二一八二九六



圖書出版

回

想

社

代表 朴 泓 九

大田廣域市 東區 中洞 四七—四

電話(〇三)二五三—九八八—三番

서울支社 (〇三)七一八—九八八—一番

出版登錄外六號

